



서울大同會報

2000년 12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73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발행인 金在淳/편집인 孫一根/편집주간 李世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2000년 한 해동안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동문 화합의 장을 펼쳤다. (커버스토리 10~11면)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銅,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金有信, 表智媛
광고부장 金千鶴

2000년을 보내면서

“가족동반 유도해 소속감 고취시켜”

안동지부 裴元煥회장



「2000년을 보내면서」라는 내용의 글을 청탁 받았다. 청탁을 받고 난 후 잠시 올 한해를 돌아보니, 그렇게 희망에 부풀면서 맞이했던 2000년이 어느새 덧없이 저물어 가고 있음을 그제야 느낀다.

올해 초 2000년을 맞을 당시에는 안동지부의 보다 큰 활성화를 위해 회원간의 만남을 더욱 증대시키고, 동문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더욱 다지는 새로운 해로 그 뜻을 품었으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실천이 다소 미약했던 것 같다.

한편 안동지부는 동문들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 지난 4월 13일 경북 북부지역 유교문화재의 명소로 널리 알려진 「知禮藝術村」-회원이 운영하는 안동 임하담 호수 주변의 의성 김씨 지존과 종가로 문인들이 글을 쓰거나, 고시공부 등을 하는 조용한 촌-에서 춘계야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도 다소 아쉬운 점이 남아 있다.

그것은 원래 동문들의 가족을 모두 초청해 고기잡이와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가족 계임을 선사, 동문 상호간의 친목뿐만 아니라 동문 가족의 화목도 꾀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준비·부족 등으로 회원만이 밤늦도록 안동소주 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는 것만으로 행사를 대신했으니, 이 계획 또한 내년으로 기약할 수밖에 없는 점이 무척이나 아쉽다.

특히 지난 봄에는 안동지역의 고교출신자 가운데 서울대에 진학한 입학생과 재학생들을 초청, 축하연을 베풀어 격려와 용기를 심어주며, 선배들의 좋은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이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열매 맺지 못하고 다음 해로 미루게 되어 부끄러울 뿐이다.

하지만 오는 2001년에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거울삼아 진정 새롭게 거듭나는 안동지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서울대총동창회 지방지부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지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동문 모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 할 것이다.

또한 2001년에는 지부 총무인 金世忠 동문이 주축이 되어 안동지부 홈페이지를 개설, 동문 상호간의 빠른 정보 교환과 모교에 관한 유익한 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동문들의 결속력과 소속감을 고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모교에 관한 유익한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안동지역 내에서 더 많은 서울대 동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새해에는 보다 알찬 계획들을 구상, 이를 실천하는데 그 주안점을 둘 것이며, 이를 통해 안동지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00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北동포,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

캐나다 온타리오지부 申秀吉회장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망의 새 천년을 맞이한 지도 어느덧 11개월, 금년도 이전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송년의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세월의 빠름을 느끼면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는 한편,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설계해 봅니다. 되돌아 볼 때, 금년 한해도 우리 동창회와 얽혀서 많은 발전과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전과 활동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 활약 하시는 동문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알기에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국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이에 따른 고통과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다만, 앞서 오신 선배들의 경험적 안내와 뒤에 오신 후배들의 열심과

존경이 함께 어우러진 동문간의 우정어린 교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정어린 교류를 통하여 이민 사회에서도 자랑스런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모범적인 시민으로서의 우리 동문들이 되시리라 믿어 마지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캐나다의 지역 특성상 광대한 대륙에 흩어져 거주하는 우리 동문들의 결집이 보다 밀접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컴퓨터의 대중화와 더불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매체 기능의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각 지역 동창회의 웹 페이지 설치가 가능해졌고, 이 웹 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동문간의 거리가 손끝 앞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서울의 본부 및 미주 동창회 사무실 등에서는 웹 페이지를 개설하여 훌륭한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지역 동창회에서 도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보매체를 이용한 동창회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또한 동문간의 전자우편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간 동창회의 유대와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동문간의 교류를 보다 빠르고 유익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새 천년 우리들의 관심이 단순히 동창회의 친목과 교류를 넘어, 조국의 분단으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우리 부모형제에게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지성인이라 자처하는 우리 동문들이 누구 못지 않게 먼저 북한동포에 대한 사랑과 실질적인 도움의 길을 모색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관악춘추

관악산 자락이 붉게 물든 단풍으로 새 모습을 보인 날. 모교 동문 3천5백여명은 故吉屋潤동문의 주옥같은 색소폰 연주곡이 담긴 CD를 들고

제22회 흙커밍데이 겸 친목 등산대회의 힘찬 출발을 했다.

1978년 첫 대회에 1백50여명의 동문으로 조촐하게 시작한 이 행사는 모교 동창회 행사 중 가장 연륜이 깊고 규모가 큰 대회로 발전했으며, 특히 배타적이라는 서울대인들에게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됐다.

동문들을 「참여」, 「협력」, 「영광」의 세 분야로 추천하는 관악대상은 동창회 발전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큰 업적을 쌓아 명예를 드높인 이들을 발굴하는 동창회 중심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회원들의 매달 불입으로 1억7천만원을 대학 발전기

금에 기증한 모교 병원 간호부의 「참여」공적, 공대 엔지니어하우스와 전문 도서관 건립에 헌신해온 鄭哲圭 동문의 「협력」정신, 마이크로 컴퓨터를 개발해 세계에 우뚝 선 李龍兇동문의 「영광」의 신화, 이 모두가 제2회 관악대상에서 찾아낸 자랑스런 얼굴들이다. 새로운

새해 2001년의 과제

2001년에는 어떤 인물들이 부각될지 기대가 된다.

뿐만 아니라 동문 교향악단은 89년부터 우리 서울대인의 대화합을 위한 연주회를 개최해 음악 애호가들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으며, 피날레에는 추억 속의 교가를 함께 부르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동창회 사업은 각 단과대학별로 올해도 독창적인 행사를 주관해왔다.

3월 미대의 「서울대와 새 천년」기념전, 의대의 「제1회 함춘대상」, 5월엔 공대의 엔지니어하우스 준공식, 약대의 「동창회의 날」 행사, 치대의 「새 천년 기념조형물」 제막식, 10월 간호대의 「간호대학 준공식 건립모금」 바자회, 상대의 「제1회 등산대회」가 연이어 열려 동창회의 왕성한 모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2000년에 열린 동창회 행사를 돌이켜보면 규모나 내용, 다양함에서 손색이 없으며, 이는 동창회 집행부는 물론, 전 동문의 관심과 협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생각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보면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지원이 대학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서울대가 미래의 새 모습을 창조할 수 있도록 외곽에서는 동창회가 굳건한 결속과 뜨거운 모교애정으로 보람있고 가치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벌이는 일이 바로 새해 2001년의 과제이다.

(斗)

주요목차

지부순례	3면
부천시부	
서울대 가족	4면
법무법인 세종 辛永茂대표변호사	
건강을 지킵시다	4면
을지병원 당뇨센터 全在錫과장	

추억의 창	4면
서울오페라단 金鳳壬단장	
동문을 찾아서	6면
SBS 尹世榮회장	
화제의 동문	15면
인터폴 金重謙부총재	

모교의 2001년도 박사과정 정시모집에서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공대 등 중요 모집단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달사태가 발생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석사과정에서도 자연대, 농생대, 치대, 천연물과학연구소 등이 미달되었다. 석사과정의 전체경쟁률은 1.37대 1이었고, 박사과정은 1.01대 1이어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둔 모교 대학원의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졸업 후의 진로가 막연하고, 서울대 출신 박사학위 소지자의 교수직 취업이 점차 어려워진 것이 큰 원인이다. 과거에는 많은 모교 졸업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원했고, 타대 졸업생들의 서울대 대학원 지원율이 높았었는데 이제 정월미달이라고 하니 속수무책이다.

대학원생의 부족은 연구교수의 부족으로 연결되고, 심지어 외국인 연구교보수에 확보하지 못하는 연구단위까지 늘어나고 있다. 교수직에 대한 매력력이 떨어지고 고학력연구자에 대한 대우가 낮은 사회에서 학문발전과 국가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緣木求魚격이다.

대학이 취업준비 학관화해서는 안 된다.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기초과학의 연구는 사회발전의 기틀임에도 응용과학의 연구에만 매달리는 것은 한심하다. 일부 교수들은 서울대학이 서울공대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우려하는데, 국립서울대학은 한국 학

트리나무팡팡

大學院亡國論



金哲洙
학술원 회원

문의 본산이어야 하며 모든 학문연구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

모교는 그동안 대학원 대학으로의 웅비를 구가해 왔는데 대학원 실태가 이래서야 「세계의 대학」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영세한 국립대학원들을 통합하여 서울 대학만이라도 진정한 연구중심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거의 모든 대학교에 대학원 설치를 인가했고, 또 특수전문대학원을 양산하여 석·박사학위의 권위를 손상시켜왔다. 그 결과 모교의 석·박사학위도 평가절하되고,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취업만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급인력의 양성기관이어야 할 대학원이 학위남발로 致富기관이 된 것이 우리 나라 현실이다. 정부는 학력인플레이를 막고 연구능력 위주의 대학원을 육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직업전문대학원이나 연구중심대학원은 소수정예주의로 인가하고, 교육낭비를 초래하는 불량대학원을 과감히 정비하여 대학원 망국론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늘

리고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대학원 정책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 모교는 미달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정한 세계적인 대학원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대학원 정책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건전한 식생활로도 장수 누릴 수 있다

사람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기본이다. 어떻게 건강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가?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왕은 불로초를 찾아 동방을 다 헤매고 다녔으나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 방송되었던 중국의 8대 요리와 홍콩의 8대 요리는 건강에 좋고 장수하는데 유익한 요리식품이라고 온갖 재료를 이용해 만들었으나 과연 그것들을 먹고 큰 효과를 보았을까?

선진국과 후진국에 있어서 식품의 소비형태에 차이가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도 식품소비형태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대체로 국민소득 1백달러 이하의 소비 군에서는 배고픔을 채우는 소비형태이나, 소득이 증가하여 1천달러 정도이면 식품의 질과 균형, 영양상태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국민소득 5천달러 수준까지는 식품의 맛을 만족하는 소비형태로 변해가고, 그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식품의 기능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

식품의 기능성에는 정력에 좋거나, 미용증진의 기능이 있는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암·제암성, 노화방지, 동맥경화예방, 관상동맥관련 질병예방, 비만예방과 억제, 신장병예방, 골다공증예방, 항충치, 항위·십이지장염, 콜레스테롤저하 등 아주 다양하다. 한편 높은 소득수준에서는 식품의 기능성과 더불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식품의 잔류농약과 화학비료성분이 인체에 해를 끼치느

나를 넘어서, 식품첨가물이나 원료에 포함된 성분과 포장자재가 인체에 무해해야하며 유전자변형 농수산식품(GMO)이 안전하다는 등 식품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식품의 기능성은 이러한 식품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기능이 발휘되어야 참다운 기능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은 약품과 달라 부작용이 없는 대신 다소 장시간 소비해야하지만, 때를 맞추어 음복할 필요가 없고, 누구나 손쉽게 장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각종 기능이 확보된 식생활을 유지한다면 누구나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한 육체는 건전한 식생활에서 달성된 결과로, 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건강과 장수는 자연스럽게 성취될 것이다.

건강장수 후의 식품형태는 예술품으로서 식품을 감상하면서 소비하는 단계가 올 것이다.

成培永

(66년 農大卒)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



부천시부 현판식(앞줄 우로부터 다섯 번째 白承權회장)

지부순례

부천시부

부천시는 복사골의 옛 정감이 서려있는 고장으로, 최근 영상예술문화의 도시로 새롭게 부상, 변모 발전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한 위성도시이자 교통과 중소기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입지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 동문들은 각 분야에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그 기여도 또한 크게 인정받고 있다.

부천시부는 1990년 창립된 이래, 초대 金洛律(53년 醫大卒)회장을 필두로 2대 李弘來(56년 藥大卒)·3대 姜豪錫(56년 商大卒)·4대 朴敬鎬(72년 工大卒)회장에 이어 현재 白承權(57년 師大卒)동문

이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지도위원으로 李完植(61년 師大卒)·朴昭範(63년 文理大卒)·鄭行元(63년 文理大卒)·金興植(63년 藥大卒)·朴永寬(64년 醫大卒)·崔鍾浩(74년 齒大卒)동문, 부회장으로 金東浩(66년 師大卒)·崔淳萬(71년 藥大卒)·吳成桂(72년 法大卒)·金聖又(75년 齒大卒)·姜永錫(76년 醫大卒)·申澈永(78년 工大卒)동문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吳錫云(66년 師大卒)부천교육장, 文永皓(74년 法大卒)부천지청장, 李晟輔(79년 法大卒)부천지원장, 李思哲(81년 法大卒)前국회의원, 金文洙(94년 經營大

卒)국회의원, 元惠榮(96년 師大卒)부천시장 등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동창회의 기반을 더욱 다져가고 있다.

그간 부천시부에서는 동문들의 결속을 다지고 동창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장단회의, 자문회의, 임원회 등의 다양한 회합을 가졌으며, 신년 하례행사, 송년의 밤, 산행대회, 바둑대회, 골프대회, 동창회보 발간, 결식아동 돕기 모금운동 등을 통해 동문 상호간의 친선을 다지고 보람을 함께 나누는 등 모교에 대한 애정을 키워왔다.

현재 사회대 2명, 공대 25명, 농대 5

명, 문리대 8명, 법대 19명, 사대 30명, 상대 6명, 수의대 11명, 약대 25명, 음대 1명, 의대 21명, 치대 25명 등 1백80여 명의 회원들이 동창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이 상당수에 이르며, 특히 젊은층의 동문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 동문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부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더욱 많은 동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토록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추진하고 있다.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고, 새 천년 부천지역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후배들을 육성하는데 선배 동문들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는다면, 따뜻한 정과 활력이 넘치는 부천시부가 되리라 확신한다.

보람을 함께 나누는 180여 동문 결식아동 돕기 모금운동 등 펼쳐

글 : 朴喜勇(69년 師大卒·성곡중 교감)총무



법무법인 세종 辛永茂대표변호사

“작은 일 하나라도 함께 합니다”

형·부인·두 딸·사촌형 두 분도 동문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인 것이 있다.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인 가족이 바로 그것이다.

자녀 모두를 해외에 보내고 걱정하지 않을 부모는 없겠지만 辛永茂(67년 法大卒·37기 AMP·법무법인「세종」대표변호사)동문과 부인 金賢實(70년 美大卒·서울여대 교수)동문은 현재 미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딸 셋에 관해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걱정보단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든든합니다』

장녀이자 한달 전 예쁜 손자를 辛동문(95년 美大卒)동문은 현재 미국 Parsons School of Design에서 디자인학을 공부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학시절 요리강습만큼은 빠지지 않았던 辛知嶸동문은 그림소질에, 손맛까지 갖춘 만능 손 재주꾼.

전공분야를 바꾼 차녀 辛瑞嶸(96년 音

大入)양은 현재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와 더불어 쟁쟁한 실력들을 갖춘,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하버드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주자로 자신의 특기를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또한 막내 辛定垠양은 美Philip's Academy 11학년(고3)에 재학중이다.

한편 충남 당진의 농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辛동문이 서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형 辛永範(62년 師大卒·前온곡중 교장)동문의 조언 때문이었다. 당시 모교에 재학 중이던 辛永範동문은 고향에 잠시 내려와다가 농사일을 돕고 있던 辛永茂동문을 보고 『너 평생 농사지으면서 살 생각이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 말에 자극을 받은 辛동문은 辛永範동문의 질책 아닌 질책(?) 덕분에 무난히 모교를 졸업, 현재 국내 로펌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회사를 이끌어가며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재능·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데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부인 金賢實동문과 장녀 辛知嶸

동문 외에도 辛동문 곁에는 미술을 전공한 동문들이 많다. 특히 사촌형인 辛永禹(59년 美大卒)동문과 辛永常(62년 美大卒·모교 교수)동문과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사이로, 이들과 가끔 모이면 시골길 냄새를 그리며 지나간 옛 추억에 젖을 때가 많다고.

한편 辛동문은 법대 재학시절을 회고하면서,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벌였던 기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특히 『국가의 일이라면 몸을 불사르지 않던 동기들과 함께 한 그 시간들은 지금의 데모와는 달리 순수하고 낭만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젊은이들과 호흡하는 것이 좋아 교수가 됐다는 부인 金賢實동문은 모교 재학시절에 대해 한마디로 『여행과 스케치』의 대학생활이었다고 한다. 인천 서해바다, 양수리 갈대밭 등...미대 동기생 중 한 명이 『OOO로 떠나자!』라고 외치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우르르 기차나 버스에 올라 목적지에 도착, 자연을 등지며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우리 가족은 각자 행동하는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함께 얘기하고, 부부 내외가 여행을 떠난다면 얼른 짐을 챙겨 따라나설 정도로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요』라고 辛동문은 훈훈한 가족애를 표현했다. (表)



좌로부터 辛瑞嶸·金賢實·辛永茂동문, 원내는 辛知嶸동문.

건강을 지킵시다

당뇨병 치료, 생활습관이 관건

全在錫(91년 醫大卒)을지병원 당뇨센터 과장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혈당이 상승하는 질환으로 혈당이 높다는 그 자체보다는,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의 지속으로 결국 합병증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게되는 질환이다. 불과 30, 40년 전 만해도 당뇨병은 우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 아니었으나,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영양섭취가 증가하고 생활양식이 보다 정적으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약 8~9%의 성인이 당뇨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당뇨병이 단지 개인적인 고통의 차원을 떠나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수많은 의학자들이 그 치료법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당뇨병은 거의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아직은 당뇨병에 대해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관리해나간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실제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체중 또는 인슐린분비 세포 이식은 거부반응 억제제를 위한 면역억제요법을 같이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위험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는 식사나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통하여 혈당을 정상 내지 거의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 치료하는 당뇨병 관리가 당뇨병 치료의 기본 원칙이다.

당뇨병은 발병 후 첫 10년 내지 20

년의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이 기간에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속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른 어떠한 질환보다도 생활습관이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질환으로, 무절제하고 좋지 못한 생활습관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합병증의 발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개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것이 보통이며, 수많은 환자들이 진단 후 치료에 소홀해지기 쉽고, 합병증이 발생한 후야 고통을 받고 후회하게 된다. 따라서 진단 후, 바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체득하고 기존의 좋지 않은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습관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이와 자가혈당측정이다. 무절제한 식사가 비만과 당뇨병을 만들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약물의 용량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 당뇨병의 진단 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 바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고 식이 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억의窓

문리대 교정 뒤뜰 창고에서 합창연습
악보는 일일이 베끼거나 등사판 긁어

金鳳壬(59년 音大卒)서울오페라단 단장

모교 음악대학에 입학할 당시인 1955년, 필자는 고향이 부산인 관계로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됐다.

한편 6·25전쟁으로 인해 남산에 있던 음악대학 교사가 화재로 소실돼 서울의 의과대학 가교사에서 공부하게 됐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입학한 대학인데, 건물이 없는 관계로 음대생들은 의과대학 정문을 이용했으며, 문리대 교정 뒤뜰에 있는 큰 창고에서 합창과 관현악 공부를 해야 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창경궁 돌담을 지나오는데, 봄에는 아름다운 노란 개나리꽃을 보면서, 가을에는 은행잎을 밟으며 꿈많은 대학시절을 보냈다.

당시 연습실엔 피아노가 한 대 밖에 없었는데, 방과후 매일 2, 3시간씩 연습을 하곤 했다. 이런 관계로 연습실에 미리 책을 놓아두고 뛰어가서 자리를 잡곤 했던 기억이 난다.

한편 당시에는 「풍기문란 13조」라는 교칙이 있어 남학생과 단둘이 연습실을 닫아두고 연습을 하면 안됐다. 이 때문에 맞은편 연습실의 문을 열어놓고 연습을 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요란한 관악기, 타악기, 발성연습 등의 소리가 그대로 들려 연습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았다.

여름이 오면 여자 음대생들은 파라솔을 쓰고 다녔는데, 당시 대학신문엔 음대생들이 화려한 옷과 파라솔을 쓰고 문리대 교정을 활보한

다는 기사가 나가기도 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단과대 중 음대가 여학생이 가장 많았으므로, 아름답고 화려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복사가기가 있어 편리하지만 당시엔 등사판을 긁으며, 악보를 일일이 베껴야 했다. 또한 버스 안이나 길을 걸을 때, 노래가사를 외우느라 중얼거리면 마치 실성한 사람으로 오인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멋과 꿈 그리고 낭만이 있었다고 생각하곤 한다.

재학시절 오페라 「춘향전」 「춘희」를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했었는데, 무대분장실에서 비빔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 이러한 우리들을 대견해하며, 칭찬해주시던 교수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 초겨울 문리대와 의과대학 돌담의 은행잎 낙엽과 가랑잎을 마음 속으로 밟으며, 옛 추억에 잠겨 본다.



우로부터 첫 번째 필자.

뉴욕 지부

신임 회장에 崔澈容동문 선출

뉴욕지부동창회(회장 金榮德)는 지난 9월 28일 뉴욕시 플러싱에 있는 금강산 연회장에서 동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제22대 회장에 崔澈容(63년 農大卒)동문을 선출하고, 차기회장에 韓昌燮(62년 文理大卒)동문, 부회장에 申應男(74년 農大卒)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신임 이사장에 전임 金榮德회장을 추대했다.

제18대 회장을 역임한 崔洙容(60년 商大卒)동문의 아우인 신임 崔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뉴

욕지부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우선 회원 파악부터 정확히 해야겠다』며 『회원주소록을 새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11일 Philip J. Rotella 골프장에서 50여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추계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단체 우승은 치과대학이 차지했으며, 개인 메달리스트의 영광은 曹晃煥(71년 齒大卒)동문에게 돌아갔다.

同會는 오는 12월 16일 아스토리아 월드 매너 연회장에서 송년 만찬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음악회 준비위원회 고문에 方恩鎬(45년 京城藥專卒), 安容九(51년 音大卒), 朴允洙(52년 文理大卒), 李來源(62년 師大卒), 韓義生(66년 獸醫大卒)동문을 위촉하고, 文成吉준비위원장을 비롯해 18명의 준비위원을 선임했다.

안동지부

차기 金浩東회장 선출

안동지부동창회(裴元煥)는 지난 11월 22일 안동시 옥정동 소재 「起林」한식당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2001년 3월경 안동대학교 교직원 식당인 「진석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기로 협의했다.

한편 동창회는 이날 차기 회장에 金浩東(54년 醫大卒·안동한일친선협회장)동문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燮)

2001년 희망찬 설계를
서울대총동창회 DIARY와 함께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급가죽으로 양장제본하고 금박과 금장을 입힌 「포켓용 DIARY」를 제작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1일까지 동창회 연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이사, 일반 포함)께 1차로 포켓용 DIARY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후 회비납부 동문과 지부에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연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 가운데 직장이나 자택 주소의 변경으로 아직 DIARY를 받지 못하신 분은 동창회 사무처로 연락주시시오. 즉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하트랜드 지부

장학위원 증원...주소록 배포

하트랜드지부동창회(회장 金好元)는 지난 9월 30일 미조리주 캔사스시티에 있는 웨스턴 크라운 센터에서 동문과 가족 1백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장학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는 등 회칙개정을 했으며, 동문 2백30여명의 연락처가 담긴 주소록을 참석자들에

게 배포했다.

하트랜드지부는 미대륙의 동과 서, 남과 북의 중앙에 위치한 캔사스, 아이오와, 오크라호마, 네브라스카, 미조리, 알칸사스 등 6개주를 한 울타리로 묶어, 미국의 심장부라는 뜻의 「Heartland」라고 부르는데서 명칭을 따왔으며, 현재 유학생을 포함해 2백30여명의 동문이 거주하고 있다.

워싱턴DC 지부

曹秀美동문 초청음악회 갖기로

워싱턴DC지부동창회(회장 文成吉)는 2001년 3월 3일 George Mason대학교 아트센터에서 소프라노 曹秀美(81년 音大入)동문 초청 음악회를 갖기로 했다.

지난 9월 14일 우래옥 식당에

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文회장은 특별사업인 曹秀美동문 초청 음악회가 확정되기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렵게 성사된 음악회이기에 동문들이 일치단결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자고 당부했다.

미술작품



「우리 모두 지나가고 있는 곳」, Acrylic, Digital, Collage, 61×72cm, 1998.

曹 泳 哲 作

◆ 작가약력 ◆

- 65년 모교 미대 응용미술과 졸업
- 77~93년 한국디자인협회 회원전
- 82년 제1회 개인전
- 서울 Illustration 협의회전
- 91~97년 한국미협전
- 92~95년 오늘의 한국미술전
- 94~95년 하나의 세계전
- 96년 서울대 미대 동문전
- 98년 SOKI 9801 MESSAGE전
- 현대 ILLUSART 국제교류전
- 99년 독일 베를린시장 초대전
- 2000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장 초대전
- 국제일러스트 Sokism전
- 현재 서울산업대 교수, 한국일러스트학회 회장, 한국디자인협회 이사장, 미대동창회 부회장.

제3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아래 시상부문에 따라 제3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시상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협력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협력」「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 1) 접수마감 : 2001년 1월 31일
 - 2)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팩스 : 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1년 3월 16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金在淳 · 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一 根



창사 10주년 맞은 SBS 尹世榮회장

“종합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할 터”

—평소 방송사 경영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계시는 방향이 있다면.

『저의 방송 경영철학은 「인간중심」입니다. 첫째 두루 인재를 면밀하게 골라 영입하고, 둘째 이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며, 셋째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충전을 지원하고, 넷째 노력한 만큼 응분의 대우를 받는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방송 제작과 관련해서는 「문화창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의 새로운 문화 창조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이 핵심입니다. 방송은 어느 분야보다도 미래가 무한하게 열려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는 이 미래를 선도해 나가려는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조직의 활력이 그것입니다.』

—SBS의 등장으로 다양한 채널선택권의 보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상업주의와 시청률 지상주의를 펼치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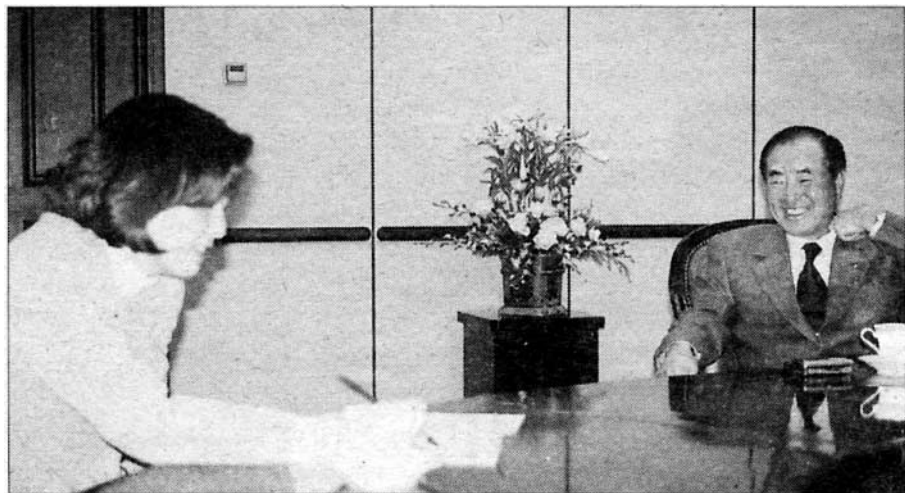
『민영방송사의 설립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공영 방송체제로는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방송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도 힘듭니다. 민영방송은 수익성에 덧붙여 다양한 볼거리를 바탕으로 재미와 여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함께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SBS의 출범으로 오히려 경쟁이 없던 시절에 비해 프로그램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측면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BS는 공익 프로그램 제작도 앞장서는 방송사입니다. 소외된 자의 곁에 서는 프로그램인 「사랑의 정검다리」, 「기아체험 24시간」, 「사랑의 쏘도리 운동」, 생명존중과 인간존엄을 조망하는 「숨쉬는 땅」과 방송대상 수상작 「생명의 기적」, 가족관계의 복원을 주제로 한 「분례기」, 「관촌수필」, 「옥이 이모」, 「은실이」 등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들을 재미와 내실을 갖춰 방송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이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상업방송으로서의 위상정립기로 볼 수 있다면, 앞으로 10년은 SBS 발전을 위해 어떤 경영전략과 포부를 갖고 계신지요.

『「물은 생명이다」는 SBS의 창사 10주년 역점 프로그램입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회의 중심과제입니다. SBS는 「물은 생명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국민, 정부, 기업들과 손잡고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물에 다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련 프로그램은 공익성에 최우선을 두고 광고수익에 의존없이 주요 시간대에 방송할 계획입니다.』

향후 10년 전략은 「종합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도약」으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공중파, 케이블, 위성, 인터넷 등 멀티 매체로의 확장과 HDTV의 도입을



투명한 경영으로 상업방송 위상 정립

인간중심·문화창조·미래지향에 역점

“같은 값이면 여성에게 후한 점수 줘”

통한 방송의 디지털화 촉진, 그리고 「디지털을 통한 인간존중의 실현」이라는 문화창조 작업의 주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에 완공될 목동 사옥은 이런 거대한 작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방송은 신문·잡지 등 활자매체와는 달리, 영상 그 자체가 주입식 형태로 다가오기에 시청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일부 왜곡된 보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여지가 없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방송사를 경영하면서 누구보다 방송의 영향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영향력은 배가되는 추세입니다. SBS는 이런 힘을 이용해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 부당한 취재와 제작 태도를 견제하자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인간」을 생각하는 방송을 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재미에 더해 인간의 삶을 윤곽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끝으로 「방송은 감동이다」라는 전제아래 보는 이가 감동하고 배울 수 있는 소재와 제작방향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SBS는 창사 10주년을 맞아 「뉴 클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지 않으면 남을 비판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태도를 견제하자는 운동입니다.』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방송사의 재정상태는 광고판매율이 보여줍니다. 지난 9월에 100%, 10월에 97%, 11월에 95% 수준이었고, 12월에는 10% 정도가 감소해서 85% 수준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보면 경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SBS 뿐 아니라 전 언론사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문사의 경우는 더욱 심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한 것은 SBS가 IMF를 겪으면서 강한 내성을 키운 것입니다. 98년에 광고수주가 55%까지 내려갔을때 감원과 분사 등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해 97년도 대비 경비를 900억 원 정도 줄였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4분의 1정도를 줄였지만 270억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광고판매율이 75%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적자가 나지 않고 현상유지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지도력 탓인지, 아니면 유능한 중역을 둔 이유에서인지 지난 10년동안 SBS가 큰 문제없이 잘 운영돼 왔다고 보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인지요.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라는 방송이념아래 처음부터 투명경영을 실천했습니다. 직원들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감추는 것이 없었습니다. 방송법에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지만 SBS의 태영 지분수준은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타주주들의 몫입니다.』

90년 출범할 때부터 사외이사제도를 받아들였고, 주주중에 5명을 이사로 모셨으며 소수주주중에서 감사도 영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몇몇 주주들과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투명한 경영을 펼친 결과 지금은 모두가 화합한 상태이지요.』

—회제를 바꿔서 회장님 개인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회장님에 대한 전설같은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께서 개업의이신데, 회장님께서 한동안 유유자적하게 浪人생활을 하시면서 생계 걱정을 안하시는 탓에, 과감히 폐업을 하

(7면에 계속)

지난 11월 14일 SBS가 창사 10주년을 맞이했다. 그 동안 SBS는 라디오 AM 방송으로 시작해 7개 지역민방을 통한 전국 텔레비전 방송네트워크와 AM, 표준FM, FM 등 3개 라디오채널, 3개 스포츠채널을 갖춘 종합미디어 방송사로 떠올랐다.

탁월한 경영수완을 발휘해 민영 방송 발전의 성공적인 획을 그어온 SBS 尹世榮(61년 法大卒·本회 부회장)회장과 특별대담을 가졌다.

대담 : 본보 朴明珍논설위원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10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8시대 뉴스, 전문 리포터제, 시트콤드라마 등 새로운 방송형식을 주도했으며, 국내 처음으로 코스닥에 등록하는 등 투명한 경영을 펼쳐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사 10주년에 즈음해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만큼 쉬지 않고 숨가쁘게 뛰어온 10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창사 10주년 기념행사에서 10년 동안 SBS가 쌓아온 성과를 되돌아 보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감회에 젖었습니다.』

90년 창사 이후 배타적인 환경 속에서 모든 임직원이 한데 힘을 모아 지금의 SBS를 만들어 냈습니다. 창업 3개월만에 라디오방송, 1년만에 TV방송을 개국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중파 3사 체제를 정립한 것 등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특히 방송계에 전례가 없는 IMF 한파를 맞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했던 기억은 아직도 안타까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제 단순한 공중파 방송사가 아닌 종합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발돋움을 선언하면서 10년 세월이 주는 무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동 정

수 상

▲朴鵬培(53년) 師大卒·한국국어교육연구원장=지난 10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식에서 한글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음.

▲閔丙峻(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1월 10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0 한국광고대회」에서 광고산업 발전과 광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음.

▲吳 明(66년) 工大卒·동아일보 사장=지난 11월 7일 프라자호텔에서 윤경재단으로부터 제6회 雲耕賞(산업기술부문)을 받음.

▲奉鍾憲(66년) 文理大卒·공주대 초빙교수=지난 11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49회 서울시 문화상(지구환경과학부문)을 수상함.

▲朴聖炫(68년) 工大卒·모교 교

수·한국품질경영학회(회장)=지난 11월 21일 개최된 제26회 국가 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훈장인 홍조근정훈장을 받음.

▲鄭明熙(71년) 醫大卒·모교 약리학교실 교수=지난 11월 23일 신라호텔에서 대한 의학회와 한국 베링거인겔하임이 공동 주관한 제10회 분수의학상을 수상함.

▲白勝寓(86년) 音大卒·경원대 교수·국제현대음악협회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지난 12월 4일 예총회관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고 한국음악협회가 수여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을 수상함.

▲金賢娥(89년) 醫大卒·한림대 교수=지난 11월 2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공동 주관한 제10회 분수의학상 시상식에서 올해 처음 수여하는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함. 金동문은 金永喆(61년 文理大卒)동문의 장녀이다.

이동·선임

▲金世景(45년) 京城帝大卒·고려대 명예교수=최근 서울 신당동 약수클리닉 피부비뇨기와 부장에 선임됨.

▲趙永植(50년) 法大卒·일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장=지난 11월 23일 국민의 정부 제2기 통일고문에 위촉됨.

▲朴權相(52년) 文理大卒·KBS 사장·한국방송협회장=지난 11월 23일 국민의 정부 제2기 통일고문에 위촉됨.

▲趙完圭(52년) 文理大卒·한국생물산업협회 이사장=지난 11월 23일 국민의 정부 제2기 통일고문에 위촉됨.

▲李榮德(52년) 師大卒·前국무총리·한동대 이사장=지난 11월 20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구성한 사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李洪九(53년) 法大人·前국무총리=지난 11월 23일 국민의 정부 제2기 통일고문에 위촉됨.

▲權五琦(57년) 法大卒·21세기 평화재단 이사장=지난 11월 23일 국민의 정부 제2기 통일고문에 위촉됨.

▲李大淳(57년) 法大卒·前경원대 총장=지난 11월 20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구성한 사학윤리위원회 위원에 선임됨.

편집주간석

동창회비, 모교와 동문을 위한 정성어린 투자입니다.

한 해가 다시 저물어 갑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 장 남은 12월의 달력은 제 몫을 다하려는 듯 하루 하루를 세고 있습니다.

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의 설계와 구상을 차분히 해야 할 때를 맞은 것입니다.

차제에 2000년도 동창회비 지료를 받으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보 구독료라도 납부하신다는 너그러우신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역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의 소망을 가꾸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金昌悅(58년) 法大卒·前한국방송위원장·환경민간단체진흥회 이사장·本報 論說委員=지난 11월 20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구성한 사학윤리위원회 위원에 선임됨.

▲金昌國(58년) 法大人·대한변호사협회장=지난 11월 23일 국민의 정부 제2기 통일고문에 위촉됨.

▲權純國(64년) 農大卒·모교 생물자원공학부 교수=지난 10월 27일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제51차 국제집행위원회에서 3년 임기의 부회장에 선임됨.

▲金光玉(65년) 文理大卒·수원

대 교수=지난 11월 18일 중앙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金好俊(65년) 文理大卒·문화일보 편집국장·本報 論說委員=지난 11월 1일 문화일보 구조조정 담당 상무이사(편집인)에 선임됨.

▲朴容晟(65년) 商大卒·대한상의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1월 23일 국민의 정부 제2기 통일고문에 위촉됨.

▲朴容眩(68년) 醫大卒·모교 병원장=지난 11월 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소화기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9대 회장

(8면에 계속)

SBS 尹世榮 회장 대담

6면에 이어

셨더니, 그럼 일 좀 해볼까 하고 세우신 것이 오늘 SBS의 모태가 된 태영건설이었고, 그 후 승승장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인가요?

『국회의원 비서관 시절에 아내가 개업의를 하다가 그만 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낭인생활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사실 저는 고학으로 고등학교를 마쳤으며, 대학도 가정교사를 하면서 어렵게 다녔습니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장교시험을 쳐서 군에 입대했고, 3~4학년은 군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과에 출석부가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도장을 찍었는데 친구들이 내 도장 몇 개를 가지고 있다가 대리출석을 해주었고, 저는 시험기간에 가서 시험만 치르곤 했습니다. 학교는 거의 다니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성적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군대에서 二星장군 전속부관, 국방부 朴炳權장관 전속부관 등을 거쳐 육군본부 총장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위로 재대했습니다. 그 후 공화당 李東寧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8년간 근무하다가 그 분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중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불명판산이 폐광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서 그만 두게 되었고, 6개월 정도를 실직상태로 있다가 국회부의장을 지낸 金振晚씨의 자제가 운영하던 미룡건설의 공사 수주를 담당하는 중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 73년 말에 사표를 내고 건설업체인 태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SBS 인가를 받으셨을 때 이런저런 루머가 많았습니다. 당시 담당 고위직 공무원과 동창관계여서 도움을 받았다는, 이름도 없는 태영같은 기업이 그런 엄청난 사업권을 받았을 때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등등이지요.

『대구문화방송 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처남(卞 鍵·SBS프로덕션 사장)의 권유로 방송사업자 공고문을 보고 방송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을 보니까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즉 신문사와 통신사는 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중소기업 내지 중견기업만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배주주를 하겠다고 신청한 기업이 태영을 비롯해 일진, 인켈, 건영, 농심, 한독시계 등 6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농심

은 대기업과 관련있는 기업이어서 문제가 되었고 결국 경쟁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일진과 태영 간으로 좁혀졌는데 당시 조건 중의 하나가 방송시작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태영이 재무구조도 좋았는데다가 여의도에 현재의 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방송을 조기 시작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지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당당하게 사업권을 얻은 것입니다.

—서울대에 여학생의 수가 최근 많이 늘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여성인력 채용에 소극적이라는 평이 있는데 SBS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같은 값이면 여성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최근에 직원 공채모집을 통해 기자 7명중 여성을 2명, PD 7~8명중 여성을 3명 채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제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것입니다. 이 정도의 비율이면 여성의 숫자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도국, 제작국 등 현장에서는 여성의 선호도가 낮은 편입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는 등 매우 거칠고 터프한 방송기자, PD가 결코 만만한 직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여성의 섬세함이 필요하고 남성 못지않은 노력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방송계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후학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SBS에 입사하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좋은 방송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건강과 자기계발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얘기합니다. 우선, 방송은 고되고 지난한 작업이다보니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은 두말할 나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둘째는 자기계발 노력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문화의 첨병이라는 방송의 속성상 앞서지 않는 사람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항상 공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로 인간에 대한 애정이 중요합니다. 방송이 인간을 다루는 문화 미디어다보니 인간에 대한 사랑없이 단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재주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경영 마인드를 갖추라고 하고 싶습니다. 방송은 거대하고 급변하는 첨단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능력 뿐 아니라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보다 나은 작품을 보다 많은 사람이 즐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면에 이어)

에 선임됨.

▲李慶衡(70년) 文理大卒·대한 매일 편집국장·本報 論說委員)= 지난 10월 31일 대한 매일 수석논설 위원에 선임됨.

▲文東厚(71년) 法大卒·소청심사위원장)= 지난 11월 19일 2002 월드컵축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내정됨.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 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 지난 11월 1일 재단법인 포산장학회 감사에 재선임됨.

▲洪錫炫(72년) 工大卒·중앙일보 회장·本會 副會長)= 지난 11월 21일 「건국 대통령 李承晚 박사 기념사업회」 이사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徐玉植(73년) 文理大卒·연합 뉴스 편집국장·本報 論說委員)= 지난 11월 29일 연합뉴스 논설위원실 고문에 선임됨.

▲金 槿(73년) 新大院卒·연합 뉴스 사장)= 지난 11월 23일 국민의 정부 제2기 통일고문에 위촉됨.

▲安炳燦(75년) 新大院卒·경원대 행정대학원장·本報 論說委員)= 지난 11월 4일 남산빌딩에서 한국 비디오 저널리스트 협회 창립식을 갖고, 초대

회장에 취임함.

▲鄭道彦(76년) 醫大卒·모교병원 신경정신과 교수·한국정신분석학회(회장)= 현재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의 「정도언의 세상읽기」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2일 경향신문 옴부즈맨 필자에 위촉됨.

▲金昌民(78년) 醫大卒·원자력병원 내과과장)= 최근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에 선임됨.

▲李容秀(81년) 師大卒·세종대 교수)= 지난 11월 1일 대한 축구협회 기술 위원장에 선임됨.

▲禹旻仙(1기) SGS·신안건설산업 회장·SGS 동창회장)= 지난 11월 24일 대한주택건설 사업협회 회장에 선임됨.

행 사

▲金在淳(51년) 商大卒·샘터사 고문·주요한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회장·本會 會長)= 지난 11월 18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頌兒 朱耀翰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함.

▲白樂院(51년) 醫大卒·학교법인 인재학원 이사장·本會 顧問)= 지난 11월 1~4일 중국을 방문, 중징의 第3軍 醫大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

았으며, 28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2회 人濟人性大賞 시상식을 개최함.

▲李海元(53년) 法大卒·공동체 사회포럼 회장)= 지난 11월 23일 롯데 호텔 가네트룸에서 金鍾仁 前 보사부 장관을 연사로 초청,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19회 조찬특별강연회를 가짐.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장)= 지난 11월 29일 하얏트호텔 툴립룸에서 한국은행 全 哲煥 (61년 商大卒) 총재를 초청, 「우리 나라 지역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짐.

▲柳鍾玄(57년) 文理大卒·前세네갈 대사·한양대 교수)= 지난 11월 28일 방배동 한국의교협회에서 「아프리카의 부족과 문화」 출판기념회를 가짐.

▲金命年(57년) 工大卒·한국기술사회장)= 지난 11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기술사 합동 심포지

엄에 참석함. ▲梁巨煥(57년) 工大卒·한국지능형교통협회 부회장·ITS 아태지역 이사회 의장)=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이탈리아 Turin시에서 개최된 제7회 ITS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했으며, 아태지역 이사회에서 2002년에 개최될 아태지역 ITS 포럼을 서울에서 갖도록 유지함.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醫大同窓會長)= 지난 11월 17일 경원대 국제회의실에서 「21세기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통일 문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李仁子(59년) 家政大卒·건국대 교수·한국 의류학회(회장)= 지난 11월 7~11일 미국 신시네티에서 열린 국제 의류학회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의류학회와 국제의류학회가 공동 주최한 「2001 서울 Joint World Conference」를 홍보함.

▲金璟東(59년) 文理大卒·모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11월 21일 서울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부인 李 溫竹 (모교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여사와 함께 결혼 30주년을 맞아 「선진한국, 과연 실패작인가?」「시너지점을 위하여」「이상향을 그리는 꿈이 이 거기 있었네」의 출판기념 행사를 개최함.

▲李東熙(59년) 文理大卒·前서울산업대 총장·五成연구소 이사장)= 지난 11월 8~14일 재외동포재단이 초청한 19개국의 민족교육자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와 선비정신」을 강연함.

▲金汶熙(59년) 法大卒·前헌법재판소 재판관)=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함.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

9 고제빌딩 303호, 전화: 3477-3362)

▲崔秉鍵(59년) 齒大卒·한국치과의원장)= 최근 안국동 로터리 1층에 치과의원을 확장 개원함.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9-2, 전화: 735-5394)

▲俞東濤(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남은음식물사료화연구회장)= 지난 11월 17일 축산기술연구소 대강당에서 제4회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심포지엄」을 개최함.

▲李銘一(61년) 音大卒·전남대 교수)= 지난 11월 9일 전남대 예술대학 연주홀에서 전남대 음악교육과 교수인 소프라노 鄭愛蓮(73년 音大卒)·테너 金鶴仁(75년 音大卒)·바리톤 南義天(78년 音大卒) 등문 등과 음악회를 개최함.

▲李相禹(61년) 法大卒·서강대 교수·신아세아 질서연구회장·本會 副會長)= 지난 11월 18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21세기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을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개최함.

▲李容璟(64년) 工大卒·한국통신프리텔 사장·국제전자상거래협회의장)= 지난 11월 27~28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G-8 dot force Inaugural Meeting」에 참가해서 국제전자상거래협회의 입장을 대표함.

▲金景梓(64년) 文理大卒·국회의원)=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판기념

(9면에 계속)

(8면에 이어)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가짐.

▲曹泳哲(65년 美大卒·서울산업대 교수·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장)=지난 11월 8~21일까지 2부에 걸쳐 갤러리 우덕에서 「2000 국제일러스트 Soki-sm전」을 개최함.

▲郭治榮(65년 商大卒·국회의원)=지난 11월 23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가짐.

▲盧炳宜(65년 獸醫大卒·경산대 교수·국제문화연구소장·세계보건기구자문위원)=지난 11월 23~25일까지 몽골 정부의 보건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함.

▲李良熙(66년 法大卒·국회의원)=지난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후원회 모임

을 가짐.

▲姜正一(68년 農大卒·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지난 11월 1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북한 농업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

▲林吉鎮(69년 工大卒·KDI 국제정책대학원장)=최근 멕시코 국제교육 협회 모임에 참석, 「대학교육의 세계화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함.

▲趙容恪(69년 美大卒·숙명여대 교수)=지난 11월 21~26일 압구정동 현대아트 갤러리에서 「시인의 마을」이란

주제로 제7회 개인전을 가짐.

▲全京秀(71년 文理大卒·모교 교수·비교문화연구소장)=지난 11월 28일 서울대 인류학 실습실에서 「브라질 정체성 찾아가기 : 질베르투 프레이로부터 호베르투 다 마타까지」를 주제로 제57회 집담회를 가짐.

▲金海暎(72년 音大卒·추계예술대 교수)=지난 11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바흐, 베토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白純實(74년 美大卒·화가)=지난 11월 8~20일 종로구 관훈동 학교재에서 「東茶頌-생성과 명상」을 주제로 작품전을 가짐.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

반도체 부사장·국제 PR 협회 한국대표)=지난 11월 14일 외신기자 클럽에서 「디지털시대의 IR전략」이란 주제로 PR간담회를 가짐.

▲朴明潤(76년 保大院卒·파인트리클럽 총재·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冠岳會理事)=지난 11월 25일 청담

동 한복나라 강당에서 파인트리클럽 창립 42주년 기념강연회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짐.

▲鄭東泳(79년 人文大卒·국회의원)=지난 12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가짐.

▲安東善(21기 AMP·국회의원)=지난 11월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가짐.

▲金澈運(33기 AMP·한국물가협회장·충효예 실천운동본부 총재)=지난 10월 3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忠·孝·禮와 人格」출판기념회를 가짐.

▲鄭然東(48기 AMP·한전KDN 사장)=지난 11월 17일 美산타클라라에 있는 ABB EIS社와 협약서를 체결, 발전회사

용 소프트웨어분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력거래 솔루션의 국내 공동사업을 위해 美 APX社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함.

▲朴明緒(27기 ACAD·경기대 교수·한국통일안보학회장)=지난 11월 11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실에서 「통일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의 모색」이란 주제로 연례학술회의를 개

최함.

▲金鍾久(47기 ACAD·국방부 국방홍보원장)=지난 11월 19~2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1회 국제군사영화

제에 한국대표로 참석함.

(정리=安興燮기자)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박명수(99년 農大卒)군·박정연 양=11월 18일 14시.
*이주형(00년 自然大卒)군·구태희 양=12월 16일 14시.
*권순천(88년 人文大卒)군·우단비 양=12월 23일 14시.
*정희명(94년 保大院卒)군·오보영 양=12월 24일 11시.
*이동호(99년 行大院卒)군·이남영 양=12월 24일 12시 30분.

*최 홍(98년 醫大卒)군·이효정 양=12월 24일 14시.

*이재욱(95년 自然大卒)군·공은주(96년 藥大卒)양(사진)=12월 25일 12시 30분.

*최 우 준(96년 農大卒)군·이현정 양=1월 7일 14시.

*배진용(98년 農大卒)군·정경희 양=1월 13일 14시.

동창회관 5층 관악홀을 이용하시는 신랑·신부에게는 사이판 또는 제주도 호텔 무료숙박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詩

먼 훗날

裴榮漢

感謝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1년 3월...

少尉 계급장 달고 戰線으로 가겠다고 하던

그 때엔...

먼 훗날, 어찌 오늘이 있을 줄 알았겠는가...

感謝합니다!

2000년 6월 6일 國立墓地 참배,

散花한 同志들의 명복을 빌고,

너희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더욱 노력하겠노라!

來年에 또 오겠노라!

感謝합니다.

農場에 들러 더덕 캐고 송어회 먹고...

感懷가 無限일세...

感謝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면 몇 번이나 만날고...

또 다시 「먼 훗날」이 있을지고...

感謝합니다.

「먼 훗날」靈界에서나 만날지고?...

感謝합니다.



松濤 裴榮漢 : 58년 商大卒, 72년 經大院卒
前육군병참학교장, (주)초록배미디어 회장

각 단과대학(원)동창회 한 해를 뒤돌아보며

2000년을 마감하며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의 올해 활동을 간략히 소개한다.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동창회(회장 李祐宰)는 지난 1월 27일 삼정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2대 회장에 李祐宰(76년卒·시일무역 사장)동문을 새롭게 선출했다.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동창회(회장 陸寶根)는 99년 10월 이사회에서 신입 회장에 陸寶根(61년 文理大卒)동문을 추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월 18일 정기총회를 개최, 신입 회장에 선출했다.

한편 陸회장은 화학과동창회장도 아울러 겸하고 있다.

가정대학

가정대학동창회(회장 李義淑)는 지난 1월 27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李義淑장학금과 목련회 장학금으로 재학생 4명에게 6백여만원을 전달했다.

간호대학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楊銀淑)는 지난 1월 4일 모교 간호대 기숙사 라운지에서 신년하례식을 거행했다. 또한 3월 25일 모교 간호대 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가졌으며, 3월 17일 본회가 주관한 제2회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참여상'을 수상한 모교 병원 간호부를 축하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간호대학 신축 건물 앞 체육관에서 간호대학 준공식 건립을 위한 동문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문들이 기증한 각종 물품, 음식 장터와 여러업체들의 제품이 전시, 판매됐으며, 특히 서울중앙병원, 삼성병원이 자체적으로 기증품을 판매, 찬조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각 기별로 모금된 찬조금과 바자회 수익금 중 1천만원을 모교 장학기금으로 전달했다.

이어 10월 18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축건물에서 30·40·50주년 졸업동문 학술대회를 열었으며, 11월 28일 소피텔멤버서더 호텔에서 金花中(67년卒·대한간호협회 회장)국회의원 당선 축하모임을 가졌다.

공과대학

공과대학동창회(회장 林光洙)

는 지난 1월 12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특별연사로 徐廷旭과학기술부장관을 초청, 특강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3월 31일 동창회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 동문간의 빠른 정보교환에 한발 더 다가섰으며, 4월 18일 모교 호암 컨벤션센터에서 「회원명부 2000」 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이어 5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 신축건물에서 정기총회 및 준공식을 거행했으며,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현 林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엔지니어하우스는 93년 5월에 가진 정기총회에서 처음으로 건립사업에 관한 사안이 통과된 이후, 98년 관악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5월 건축기공식을 거행했다. 한편 엔지니어하우스 건립 기금으로 공대 교육재단 및 동문들이 49억원을 모금했다.

이날 행사에서 엔지니어하우스를 시찰한 동문들은 가족과 함께 안양 수목원에 모여 등산대회를 가졌다.

특히 동창회 사무실도 이 건물에 들어서게 되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동창회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됐다.

농과대학

농과대학동창회(회장 尹勤煥)는 지난 5월 20일 모교 수원캠퍼스 사색의 동산에서 정기총회 겸 입학 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이어 1965년에 입학한 동문들의 과·동아리별 소개와 동문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한편 여흥을 즐긴 동문들은 모교 교육 및 연구시설인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농업생물신소재연구센터, 식물분자유전육종연구센터, 농생명정보센터, 농업사박물관, 상록·녹원관 등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술대학

미술대학동창회(회장 李信子)는 지난 3월 1일부터 8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서울대학교와 새 천년」이라는 주제로 동창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동문전시회를 개최했다.

4천여명에 이르는 동문들의 화합과 새천년을 맞아 모교를 다시금 빛내자는 취지로 열린 이날 전시회에는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졸업한 동문 3백90여명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동·서양미술 작품에서 영상작품에 이르기까지



가정대동창회(목련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공대동창회 엔지니어하우스 개관식.



미대동창회 정기총회.



사대동창회 동문친목수련회.



상대동창회 2학기 장학금 전달식.

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또한 6월 13일에 모교 호암생 활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새 회장에 李信子회장을 재추대하는 등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했다. 한편 10월 14일 첫 임원 모임에서 새로 임명된 부회장, 사

무국장, 사무간사, 이사 등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과대학

법과대학동창회(회장 裴命仁)는 지난 1월 18일 서울프라자호

텔에서 신년 인사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모교에 새로 부임한 교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낙산장학회에서 재학생 29명에게 2천6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5월 30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16대 총선 당선 동문 축하연을 개최했으며, 역대 대법원장을 지낸 동문들을 「자랑스러운 서울 法大人」으로 선정,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입 회장에 裴命仁(56년 法大卒·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변호사)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1학기에 이어 2학기 장학금으로 28명의 재학생들에게 2천8백여만원을 전달했다.

동창회는 특히 7월 12일 63빌딩에서 가진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직, 재정 및 홍보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 교수들을 직접 만나는 등 모교와 동창회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하는 등의 방안들을 내놓았다.

한편 9월 4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낙산장학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새 이사장에 金性洙동문을 선임했다.

사범대학

사범대학동창회(회장 李璆教)는 지난 5월 30일 모교 호암생활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입 회장에 李璆教(59년 師大卒·방송통신대 총장)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7월 3일 프레스센터 연회실에서 동창회 고문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7월 13일 프레스센터 국화홀에선 새 집행부가 결성된 이래로, 첫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한편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포천군 산정호수 유스타운에서 동문친목수련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동문들은 현지답사를 통해 고석정, 노동당사, 백마고지 등을 관광했으며, 별도의 산행을 희망하는 동문에 한해 해발 1천미터인 명성산을 동반하는 코스를 따로 마련했다.

상과대학

상과대학동창회(회장 高炳佑)는 지난 2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2000년도 최우수 졸업자 및 최우수 논문 시상식」을 가졌으며, 1학기 장학금으로 경영대학 및 경제학부 재학생

(11면에 계속)

(10면에 이어)

30명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4월 19일 회장단회의를 통해 최우수 논문상 시상제도를 신설, 세계적인 연구논문을 발표한 동문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5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제16대 국회의원 당선동문 축하연 및 대한상공회의소 신입 회장에 취임한 박容晟동문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10월 3일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장에서 제1회 걷기·등산대회를 개최했으며, 8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수의과대학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佑宰)는 지난 2월 16일 독산동 로얄가든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또한 9월 1일 모교 수의대 교수회의실에서 장학금 수여식 및 회장단회의를 가졌으며, 이날 회의에서 동창회 행사준비위원회를 노·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동문들도 임원으로 선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가장 큰 행사인 정기총회 겸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10월 8일 모교 수원캠퍼스 잔디밭에서 열었다.

1부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으며, 2부 행사에서 동문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 게임 및 수의사 가족, 부부 동문, 여성 동문들의 노래·장기자랑도 펼쳐 동문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약학대학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禮植)는 지난 2월 19일 롯데월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문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헌신한 동문들에게 「총동창회장賞」을 비롯, 「약대동창회장賞」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가졌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현 회장을 유임했다. 또한 6월 13일 일품기원에서 친목을 다지는 친선 바둑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2개조로 나뉘어 치러졌으며, A조에 孔錫模동문이, B조에 俞載應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10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제19회 「동창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문 가족들은 벙커 발췌, 싱글 퍼팅 등의 게임과 한바탕 명랑운동회 및 한마음축제에 참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음악대학

음악대학동창회(회장 金正吉)



약대동창회 정기총회서 동창회장賞 시상.



음대동창회 장학금 전달식.



의대동창회 제1회 합춘대상 시상식.



치대동창회 「새 천년 기념 조형물」 제막식.



행대원동창회 승진동문 축하모임 겸 신년하례회.

는 지난 3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 겸 「2000년 자랑스런 서울음대 동창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金正吉(62년卒·한국작곡가협회 회장)동문을 신입 회장에 선출했다. 한편 2000년도 1,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2월 21일, 8월 22일 동창회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의과대학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

는 지난 3월 16일 신라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제1회 합춘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합춘대상은 동문 가운데 평생을 학술연구·의료봉사·사회공헌의 부문에서 인류복지 증진에 헌신한 공헌했거나 국가 및 의료발전을 위해 큰 업적을 세운 동문에게 그 뜻을 받들어 시상하는 제도이다.

이날 행사에서 柳 駿(41년卒·유준의과학연구소장)·權彝赫(47년卒·성균관대 이사장)·李鎬汪(54년卒·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동문에게 합춘대상을 시상했으며, 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동문에게 감사패를, 우수 지회 및 우수 동기회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5월 21일 모교 병원 테니스장과 치과병원 테니스장에서 친선동문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대회에는 가장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챔피언부·일반부·老童部 3개조로 나누어 치러졌다.

한편 동창회가 추진중인 합춘회관 건립사업이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으며, 합춘회관은 모교병원 가정의학과 옆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연면적 1천여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치과대학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池憲澤)는 지난 5월 19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과병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동창회를 위해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원로 동문들에게 기념메달을 증정했으며, 전임 회장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8월 7일 모교 치과대학 본관 앞에서 「새 천년 기념조형물」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가진 데 이어 10월 10일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번 건립사업은 1999년 5월 20일 정기총회에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취지로 건립한 계획이 통과됐으며, 같은 해 11월 15일 조형물 공모안을 공고, 2000년 1월 11일 임시모임을 거쳐 경기대 朴光一 교수의 작품을 선정했다.

대학원

대학원동창회(회장 金圭植)는 지난 2월 8일 신라호텔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4월 20일 모교 연건캠퍼스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故 裴載湜전임 회장의 명복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새로 발간된 동창회보를 참석한 동문 전원에게 배포했다.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禹德昶)는 지난 5월 9일 동창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 동문이나 벤처기업을 창업, 성공적으로 운영한 동문에게 「경영인상」을 수여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모교 재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컴퓨터, 공기청정기, 안락의자, 학생사물함 등의 기념품들을 계속적으로 기부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2000년도 1,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은 3월 30일, 9월 27일

모교 경영대 학장실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동창회(회장 李成九)는 지난 3월 24일 동창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입 회장에 李成九(67년卒·동남보건대 학장)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金秀哲)는 지난 6월 4일 과천 소재 청계산에서 동문들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제1회 등산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기회에게 1등 다정상, 2등 봉사상, 3등 노력상을 수여했으며, 다채로운 기념품을 동문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8월 26일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하계 학위 수여식이 있었으며, 50명이 동창회 신입회원으로 등록했다.

한편 동창회는 올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모교소식 뿐만 아니라 해외 동문들의 소식도 함께 볼 수 있게 됐다.

신문대학원

신문대학원동창회(회장 趙容直)는 지난 3월 7일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신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새 회장에 趙容直(72년卒·前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동문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또한 6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NGO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가졌다.

행정대학원

행정대학원동창회(회장 韓昇洙)는 지난 2월 18일 조선호텔에서 승진동문 축하모임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또한 5월 30일에 정기총회 겸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을, 9월 8일에 「陳 稔장관 초청강연회 및 이사회」를 각각 가졌다.

환경대학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李廷植)는 지난 3월 30일 롯데호텔에서 가진 조찬모임에 이어 4월 19일 롯데호텔에서 2000년도 정기총회 겸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입 회장에 李廷植(72년卒·국토연구원장)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9월 22일 호텔 아미가에서 제10회 조찬모임을 가졌으며, 이날 한국은행 全哲煥총재가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의 걱정

金萬玉(63년 文理大卒)소설가

내겐 휴대폰이 없다. 나는 운전을 할 줄 모른다. 컴퓨터도 사용할 줄 모른다. 그 흔한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현금카드 한 장 없어 일일이 은행창구에서 재래식으로 입출금을 하고, 물건값은 현금으로 지불한다. 폰뱅킹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원시인처럼 서류를 거스르며 사는 사람에게도 딱 한가지 예외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외여행인데, 그 여행조차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다가 크게 낭패본 일이 있다.

1996년, T.W.A기 폭파사건이 있던 해 여름이다. 파리의 큰 딸네에 갔다가 작은 딸과 함께 2박3일 로마에 다녀오기로 했다. 출발지인 파리 공항도, 도착지인 로마 공항도 삼엄한 분위기였다. 심지어 드골 공항의 탑승 대기실에서는 급조된 칸막이 안에서 어떤 백인 아주머니의 속옷까지 들춰보는 장면이 전장 거울에 비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흥미진진했을 뿐이었다.

2박3일 로마 관광을 무사히 마치고 페르미니 역에서 안내인과 작별, 모녀끼리 흥분하게 기차로 공항에 도착했다. 에어프랑스 창구에서 탑승권을 받으려할 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좌석 배정 작업을 하던 이태리 여자가 우리에게 부칠 짐이 있느냐고 물었다. 부칠 짐은 없고 손가방만 있다고 했을 때 여자의 안색이 확 변

“
내겐 휴대폰이 없다.
나는 운전을 할 줄 모른다.
컴퓨터도 사용할 줄 모른다.
폰뱅킹도 할 줄 모른다.”

“
공중전화가
다 사라지고,
은행창구는 폐쇄되고,
원고지에 쓴 글을
거절하는 세상이
되면 어찌나...”

했다.

『파리에서는 곧바로 서울로 돌아갈 거나.』

『아니다. 딸네에 며칠 더 머무르다 돌아갈 것이다.』

『서울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보여다오.』

『그건 파리의 딸네 집에 두고 왔다.』

『당신네 여권과 탑승권을 내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 파리의 딸에게 연락해서 드골 공항의 경찰에게 그 항공권을 보여주게 해라. 그때까지 당신들은 로마를 떠날 수 없다. 이젠 틀이다.』

딸네 집은 공항 반대 끝 파리 남쪽 번두리에 있고, 탑승 시간은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사정을 말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서양 사람들이 틀이란 말을 할 때의 그 완강함이란 절벽 그 자체가 아니던가.

페르미니 역에서 유학생인 가이드와 작별할 때 동전 한 닢까지 남기지 않고, 리라는 모조리 쥐버린 상태에서 환전소와 카드 판매소 앞의 긴 줄은 어떻게 해결하고 파리의 딸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는지, 파리의 딸은 또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드골 공항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 파란곡절은 길이가 제한된 이 글에서는 도저히 다 쓸 수 없는 긴 이야기다.

어쨌든 큰 딸에게 전화를 한 후, 작은 딸과 나는 그 저승사자 같은 여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앉아 저 여자가 왜 우리의 탑승을 저지했을까 궁리했다. 부칠 짐이 없다고 했을 때부터 사단이 생겼으니까

우리의 여행이 다른 한국사람들의 여행행태와 다른 게 문제가 된 모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단체여행도 아니고 젊은 여자, 늙은 여자 한 쌍이 쇼핑조차 하지 않고 들뜬 여행 분위기도 풍기지 않은 것이 의심스러웠던 모양이라고.

『내가 김현희 같아 보이냐 보지.』

딸이 잔뜩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김현희는 예쁘거나 하죠.』

『나야 예쁘지 않지만 넌 예쁘잖니?』

『아니 엄마는 이 상황에서 그런 농담이 나와요?』

이윽고 저승사자가 허리를 굽혀 팩스에서 나오는 서류를 보는 눈치였다. 다가가서 우리와 관계되는 서류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저승사자가 활짝 웃으며 『미안하다. 노스 코리아인 줄 알았다.』고 했다.

서울로 가는 항공권에 운운하던 여자가 그럼 서울이 북한인 줄 알았던 말인가. 싸울 시간도 없었고, 싸울 정도로 유창한 영어도 안되니 한숨 한번 크게 쉬고, 남들처럼 적당히 쇼핑도 하고 폼나게 짐도 부쳤으면 아무 탈 없었을걸 하고 우리말로 중얼거리며 비행기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십 년을 더 살지, 이십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재래식으로 버텨볼 셈이다. 어느 날 공중전화가 다 사라지고, 은행창구는 폐쇄되고, 아무 데서도 현금만 받지 않고, 원고지에 쓴 글은 거절하는 세상이 되면 어찌나 가끔 걱정을 하면서.



유고슬라비아 대통령과 대주교

盧成煥(89년 人文大卒)한국언론재단 언론사업팀장

“
티토 소년은
신부의 말대로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되었고,
쥘 소년도
그 말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회사 사무실 자리에서 밖을 바라보면 덕수궁 전경, 영국 성공회 건물과 그 주변 풍경이 굽어보인다. 그리고 덕수궁 내의 알록달록한 고운 단풍과 주변 가로수의 은행잎들이 이리저리 멋진 여행을 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자연의 섭리는 참 다양하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이 단풍을 보고 있으면 다양한 의견이 유통되고 있는 언론계의 현상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같음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위 사상의 공개시장(the open market place of ideas)이라는 언론현상처럼 말이다.

한국언론재단은 지난해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언론연구원 그리고 한국언론인금이 통합, 국내 최대의 언론공익 재단법인으로 출발하여 각종 언론지원, 연구, 연구조사출판, 국제언론교류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10년 가까이 언론관련 업무를 해오면

서, 「말」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절실히 실감하고 경험한다. 하루동안 많은 말들을 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점은 각자 하는 일은 다르더라도 동서고금을 통틀어 일관되게 적용되는 진리는 「말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라는 사실이다. 어느 분야보다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언론인들과 관련된 업무이기에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언론 현상 하나 하나를 폭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스스로의 사고능력임을 실감한다. 언론인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그들과 가까이 함께 일하고 있음은 사회적 이슈나 현상에 비교적 빨리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행운으로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개진되는 의견과 시각의 다양성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도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인터넷 등 전자정보통신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전통적인 토론과 대화의 방식이 변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체제로 재편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의사표시의 방식, 언론교류의 방식이 전방위로 가능

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것 중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

작은 시골 전주 교회에서 주일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를 돕던 복사(전주 교회에서 신부를 돕는 소년을 복사라고 함) 소년이 실수로 제단의 성찬으로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다. 신부는 즉시 소년의 뺨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어서 물러가고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마라!』고. 이 소년은 장성하여 공산주의의 대 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다.

또 다른 큰 도시의 전주 교회에서 미사를 돕던 한 복사 소년은 역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다. 신부는 곧 이해와 동정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여 주었다. 『음, 네가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라고. 이 소년은 자라나서 유명한 대주교 홀튼 쉰(Archbishop Fulton Sheen)이 되었다고 한다. 티토 소년은 신부의 말대로 제단 앞에서 물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되었고, 쉰 소년도 그 말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金重謙정보관리부장

인터폴 집행위원회 부총재로 선출

종교학 전공·행시 합격 후 경찰에 투신

『우리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부총재로 선출된 서울지방경찰청 金重謙정보관리부장.

77년 모교 인문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한 金동문은 동기들에 비해 졸업이 다소 늦었다. 신입생 시절에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해 수업보다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 학점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졸업할 때에는 우수 논문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 실력을 크게 인정받았으며, 특히

이 논문은 당시 창간호인 잡지 「종교와 윤리」에 게재되는 특혜(?)를 안기도 했다.

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金동문은 졸업후 병무청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국무총리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상공부, 경제기획원 등지에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에도 무언가 허전함이 계속적으로 金동문을 자극해왔다. 그것은 다른 아닌 업무와 자신의 적성과의 불일치였다. 그러던 중 金동문에게 뜻밖의 제의가 들어왔다.

당시 치안본부 정보 2과장이었던 朱炳德(79년 行大院卒·前충북도지사)동문이 활동적이고, 현장감이 살아있는 경찰직을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해온 것이다.

현장감 있는 일을 원하던 金동문에게 이와 같은 제의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변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金동문은 소신껏 경찰에 투신, 치안본부 인사교육과를 시작으로 점차 경찰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金동문은 먼저 그 동안 불필요하고 불합리했던 기존의 관행들을 하나 둘씩 바로잡기 시작했다. 특히 보다 쉽고 편하게 일을 하며, 효율성은 더욱 높이는 방안을 연구, 이를 일에 도입했다. 또한 金동

문은 기존 경찰의 결재 체재를 대폭 수정, 업무 보고를 그 일의 담당자가 직접 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및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金동문의 추진력과 결단력 등은 지난 11월 3일 그리스에서 개최된 제69차 인터폴 총회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다른 아닌 국내 최초로 인터폴 집행위원회 부총재로 피선된 것이다.

1923년 국제성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국 경찰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인터폴은 현재 1백78개국 회원국으로 있으며, 의사 결정은 임기 4년의 총재와 부총재 3명 등 4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한다. 이로써 金동문은 유럽담당, 미주담당 부총재와 함께 아시아·중동 지역을 담당하게 됐다.

金동문은 『국제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범죄인 사이버 범죄, 마약, 위조지폐 범죄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대비 인터폴의 전문 교육 기능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폴의 본부가 프랑스 리옹에 있어 다소 유럽위주로 운영되어 왔다는 말들이 많았다』고 말하며 『이에 인터폴에서 아시아의 역할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金동문은 경찰의 직분에 대해 『경찰은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거나, 정치권에 줄을 대면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인 스스로 청정권을 가져야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는 청정의무를 갖도록 일깨워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金동문은 金光子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장남인 載旭군은 모교 경영대 4년으로 현재 휴학, 군복무중이다. (信)



⑤3제이텔 (주)

「셀빅」·「셀빅 아이」 등 휴대용 단말기 개발 연매출 200억...유망 중소기업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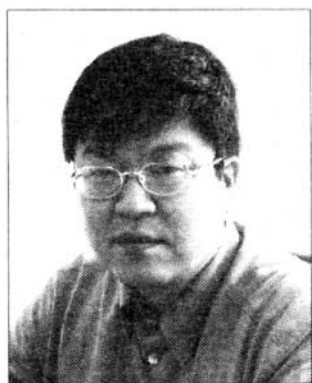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동통신 및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업체의 선두주자로 발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지난 97년 11월,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대한 선진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출발한 제이텔주식회사(사장 辛東燾·85년 自然大卒)가 바로 그 기업이다.

제이텔은 개인정보를 손쉽게 관리하는 동시에 인터넷·전자메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PDA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벤처기업으로, 올해 약 2백억원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제이텔이 PDA 전문기업으로 첫 발을 내딛을 무렵인 97년, 국내 PDA 시장은 대기업들이 외국의 OS를 비싼 로열티를 지급하고 들여와 고가로 국내에 판매하던 시기로 그다지 국내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이에 辛사장은 자체 OS를 개발하여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국내 사용자 실정에 맞는 제품을 만든다면 경쟁력에서 앞서 갈 수 있다고 판단, 개발에 착수했다.

설립 1년 만에 「셀빅」이라는 국내 최초의 휴대형 정보단말기를 개발, 출시한 제이텔은 99년 세계 최초로 CDMA/PCS 이동전화와 연결,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성



辛東燾 사장

「The World Best Award Silver」상을 수상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부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는 등 점차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또한 올해에는 한국표준협회가 선정, 수여하는 새천년 으뜸상 「밀레니엄 프런티어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PDA업체의 일인자로 급부상했다.

한편 제이텔의 주력 상품인 「셀빅」은 소수의 매니아 층만을 두고 있던 국내 PDA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외국산 PDA 가격의 50% 미만에 이르는 보급형 PDA, 한글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안정된 OS 등을 선보이며, 국내에 「셀비안(셀빅 사용자를 지칭하는 단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불

공했다.

특히 제이텔은 이러한 기술력을 크게 인정받아 지난 99년 한국능력협회가 수여하는

러왔다.

그 결과 「셀빅」은 국내에 1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패거리를 이룩했다. 또한 올 11월초에 출시한 세계 최소형·초경량인 「셀빅 아이」는 벌써부터 N세대의 필수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떠오르는 IT강국인 중국 시장에 1백만대 이상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제이텔은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도 이미 수출을 개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홍콩에서 개최된 홍콩전자전(아시아 4대 IT 전시회 중 하나)에서 외국업체로는 최초로 홍콩전자산업 협회가 수여하는 「최우수 소비재 전자제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현재 한글, 영어, 중국어 등을 지원하고 있는 셀빅 시리즈는 내년 하반기까지 스페인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등을 개발, 세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내년 중 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중인 辛사장은 「2002

년까지 셀빅 OS가 세계 모바일 시장에서 표준 플랫폼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오는 2001년 스마트폰, IMT 2000, 차세대 PDA 등의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국내 PD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분야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信)



제이텔의 주력 상품인 「Cellvic i」



부산지부 관악산우회 금정산 등반 대회

부산지부동창회 관악산우회(회장 金永泰)는 지난 11월 20일 금정산에서 제6차 등반대회를

를 가졌다.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등반대회에서 동문들은 11월의 마지막 단풍과 억새풀의 운치있는 산길을 오르며, 동문 상호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했다.



국어교육과

충남 일대 가을 나들이

국어교육과동창회(회장 鄭愚相)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안면도 등의 충남 일대를 탐방하는 「2000년도 동문 가을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가을 나들이 행사에서 동문들은 수덕사와 해마읍성 등을 견학했으며, 충남 홍성군 갈산면

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金佐鎭장군의 생가와 萬海 韓龍雲선생의 생가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柳聖圭(백제한의원장)동문이 참석한 동문들을 위해 우리시대의 건강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펼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李應百·朴英子·禹寅燮·朴鵬培·韓元永·李明權·李應鎬·金銀淑·吳寅泳·林萬榮·柳光烈동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연회비 납부 안내 :

한 방울의 작은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기적을 이룹니다.

사범대학

친목수련회 개최

사범대학동창회(회장 李璫教)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포천군 산정호수 유스타운 수련원에서 친목수련회를 개최했다.

첫째날 동문들은 여장을 풀고 수련원 강당에 모여 간단한 개회식을 가졌다.

행사 이튿날에는 휴전선 일대의 전방 참관원과 명성산 산행팀으로 나누어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기관차 잔해가 있는 월정역, 휴전선 비무장지대, 고석정 유적지 등의 관광 명소를 답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약대 11회

金洛斗회장 선출



약대11동기회(회장 李甲烈)는 지난 11월 11일 모교 동원생활관에서 200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金洛斗(모교 명예교수) 동문(사진)을 선출했다.

체육교육과

홈커밍데이 행사

체육교육과동창회(李錫條)는 지난 10월 21일 모교 종합체육관에서 동문 및 가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음대 재학생들이 모교를 방문한 선배들에게 클래식 및 국악연주를 선사했으며, 스포츠댄스와 학춤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토목공학과

캠퍼스일주 걷기대회

토목공학과동창회(郭永駟)는 지난 11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2000년도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동문 3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지난 학창시절을 회고하는 시간으로 모교 캠퍼스일주 걷기대회를 개최했으며, 이어 엔지니어하우스 산학강의실에서 동문 바둑대회를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고려대 南尙九(70년卒)교수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열띤 찬사를 받았다.

금속공학과

「금속의 날」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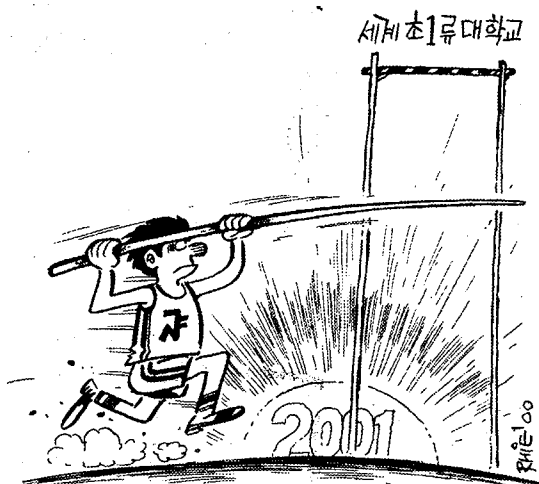
금속공학과동창회(회장 趙容善)는 지난 10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제15회 「금속의 날」 행사를 가졌다.

1백여명의 동문 및 동문 가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협동줄넘기, 노래하기, 훌라후프경기, 이어달리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 동문 상호간의 우애를 더욱 다졌다.

〈信〉

만평

李元馥



진짜 21세기가 열린다!

모교소식

「사이버 공동대학」 설립 추진 서울·베이징·도쿄·하노이대

모교 李基俊총장은 지난 11월 5일 중국 베이징대에서 베이징대 쉬즈홍(許智宏)총장, 일본 도쿄대 하스미 시게히코(蓮實重彦)총장, 베트남 하노이대 뉴엔 반 다오 총장과 만나 인터넷상에 공동사이트를 구축한 뒤 각 대학의 강의내용을 올려 다른 대학이 강의나 학생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는 「사이버 공동대학」을 내년 하반기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대학간의 학술 교류 강화를 위해 해당 대학에 「공동문화 창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객원교수와 교환학생 파견 증원, 여름 학기를 통한 단기연수 확대 등 인적 교류를 넓

히고 상호 학점인정 및 공동학위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모교는 내년부터 50명의 대학·대학원 학생을 도쿄대와 베이징대에 보내고 하노이대와의 교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동학위제가 실시되면 모교에서 2년 공부한 뒤 다른 대학에서 나머지 2년을 공부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생은 두 대학에서 동시에 학위를 받게 된다.

한편 4개 대학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협력과 공동연구를 위해 4개 도시의 이름을 딴 「베세토하 펀드(BESETOHA FUND)」란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京城醫專 동창회서 교기 기증 모교 병원 의학박물관에 전시



좌로부터 朴容眩원장, 鄭道彦의학박물관장, 유인회 회장.

지난 11월 2일 모교 병원 시계탑 건물 제1회의실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 동창회 소가 도시미쓰(曾我敏盛)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동문과 朴容眩병원장,

鄭道彦의학박물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성의전 교기 기증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有隣會(일본 경성의학전문학교 동창회)는 의학

박물관에 교기와 교가 녹음 테이프, 악보 등을 전달했다.

이날 거증받은 교기는 일본 히로시마에 있던 경성의학전문학교 동문들이 1980년에 제작하고 有隣會에서 20년간 보관해온 것으로, 모교 병원의 역사는 물론 우리 나라 근대의료사를 상징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편 모교 병원은 有隣會에 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했으며, 이날 거증받은 교기를 의학박물관에 길이 보존, 전시해 일반인들이 근대 의료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숨결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박물관

五園 張承業 특별전

박물관(관장 李鍾祥)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선말 천재화가인 五園 張承業의 예술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기획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신선 3명이 서로의 나이를 자랑하는 내용을 담은 「三人問年圖」와 사람의 수명을 맡고 있다는 남극성 화신인 노인의 모습을 그린 「南極老人圖」를 비롯해 「山水翎毛 10폭 병풍」 「茂林村莊圖」 등 50여점 90폭을 선보이고 있다.

내년 교양과정에 日語강좌 첫 개설

모교는 내년 1학기부터 일본어 강좌인 「대학 일어(가칭)」를 교양과정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개설할 방침이며, 일본 도쿄(東京)대에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다.

또 모교는 박사급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도쿄대는 박사급 일본어 교육 전문가를 교환 파견하기로 했다.

모교 부총장에

자연과학대 李鉉求학장 임명

모교는 지난 11월 24일 임기가 만료된 宋丙洛부총장 후임으로 자연과학대 李鉉求(65년 文理大卒)학장(사진)을 임명했다.

신임 李부총장은 모교 수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81년 미국 코네티컷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99년부터 자연과학대



학 학장을 맡아왔다.

故 李承永동문 유족 모교 병원에 1억원 기증



지난 11월 17일 모교 병원 朴容眩원장실에서 故 李承永(62년

醫大卒)동문 부인 金文喜여사(사진 左)가 의학발전 연구기금으로 1억원을 기증했다.

李동문은 대학졸업 후 30여년 동안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학동의원」을 열고 환자들을 진료해왔으며, 8년전 감염된 C형 간염이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돼 모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1월 1일 별세했다.

李동문의 장녀 이준아(93년 醫大卒)동문은 부친의 뒤를 이어 모교를 졸업하고 보훈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재직중이다.

모교 병원은 이날 출연받은 기금을 소화기내과 간질환 연구 및 기타 병원 발전에 사용할 예정이다. (變)

“서울대학교와 함께 창업의 꿈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창업보육센터는 유망한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을 입주시켜 제반지원을 통해 건설한 중소기업체로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소재지 및 규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4-1(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내)

○인큐베이터실 임대 / 총 1,579평, 62실

13평형(15실) 24평형(2실) 28평형(35실) 34평형(2실) 36평형(8실)

2. 입주대상 및 자격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 화학, 생명공학, 생활 및 지식 서비스 및 기타 분야 벤처기업, 벤처기업 지원업체, 기타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예비창업자도 가능)

3. 입주기간 및 조건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임대료: 평당 월 3만원(초고속 통신망 사용료 포함)

○임대보증금: 20평 미만 300만원, 30평 미만 500만원, 40평 미만 700만원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실비 부담)

4. 제출서류

○공통: 입주희망 신청서, 전문가 추천서(교내업체 제외), 기타 각종 자격 및 인증 등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벤처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비창업: 소속기관장의 예비창업승인서(본교 교수 및 학생)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간: 입주신청서는 11월 20일(월)부터 교부

접수는 11월 27일 ~ 12월 11일(월)까지

○장소: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사무국

(주소 /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880-5027/5019 팩스: 872-4149

○홈페이지: 서울대학교 <http://www.snu.ac.kr>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

시설 지원	-지상 5층 지하 2층 인텔리전트 빌딩(24시간 가동) -초고속통신망, 공동 사무기기 사용, 회의실, 강당(AV 시스템 완비),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등 공동 이용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주차시설 확충과 공동사용, 학교 전산정보 사용가능
편리한 환경	-학교 연구시설 및 장비사용 편리 -연구공원 내 SK Telecom 및 LG연구소가 입주하여 연구개발 여건 조성(2001년)
창업 및 경영지원	-각종 자금 및 인력지원의 앞선 -창업입주(법인설립, 법률, 회계) 지원

* 입주자는 별도 협약에 의해 입주기간내 일정 지분의 주식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출연하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이사장 李 基 俊

문화
단신

新刊

■ 인생의 오솔길 —朴鵬培 著



한국국어교육연구원 朴鵬培(53년 師大卒)원장이 평생 집필해온 시조·한시와 자유시를 두 권에 모아 발간했다.

인생이란 사람의 참된 삶이요, 오솔길이란 주변이 호젓하고, 조용하며, 고요하고, 쓸쓸하고, 괴괴하여 한 두 사람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걸을 수 있는 작은 길이라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학예문화사刊·각권 값5,000원)

■ 세월 —禹光均 著



경기도 치과의사회장을 역임한 禹光均(56년 齒大卒·연일학교 치과보건 관리소장)동문이 외길걷기 40년을 주제로 에세이집을 선보였다.

찬란한 청춘을 다 보낸 지금이 오히려 편안하고 여유롭다고 역설하는 禹동문이 위대한 세월을 관조하는 마음으로, 세월의 걸을 따라 여기까지 흘러온 삶을 반추하는 느낌으로 인생 역정을 한 권에 담았다. (참글사刊·값8,000원)

■ 쓰르라미 벼이 되어 —尹鍾燮 著



한국공간시인협회 尹鍾燮(57년 文理大卒·홍익대 명예교수)회장이 고 희 시선집을 펴냈다.

이승과 저승을 잇는 길목에서 안답시고 제 멋대로 해석하며 지식과 교양의 혼동 속에서 살아가는 반병어리들이라고 노란 「쓰르라미 벼이 되어」와 「서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한 줌의 흙덩어리로」 등 자연과 인생을 그린 30여편의 시를 묶었다. (교단문학출판부刊·값5,000원)

■ 2000 한강의 여명 —한국공간시인협회

새천년을 맞이하여 한국공간시인협회(회장 尹鍾燮) 회원 2백명이 각자 창작시 2편씩을 모아 펴낸 열 번째 시선집. (한강출판사刊·값8,000원)

■ 테모크라시 신민주정치시대가 온다 —李清洙 著



KBS 객원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李清洙(63년 文理大卒·순천향대 교수) 동문이

이론과 실재가 접목하는 테모크라시의 종합 안내서를 펴냈다. 테모크라시가 완전한 직접민주정치를 언제 어떻게 가능하게 하고, 그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이 민주정치의 가장 이상형인가를 심도있게 살폈다. (중앙M&B刊·값9,000원)

■ 지식사회는 가고 正覺사회가 온다 —許信行 著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許信行(66년 農大卒) 사장이 지식사회는

가고 정각사회가 온다는 미래에 관한 저서를 내놓았다. 저자는 지식사회는 산업사회와 더불어 상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올 사회는 인터넷의 가상공간으로 설명되는 사이버사회와 함께 상생할 정각사회라고 예언한다. (범우사刊·값9,500원)

■ 내가 보고 내가 바꾸는 DIY사주 —錢 洙 著



동방 명리학 연구원 錢 洙(67년 法大卒)원장이 펴낸 사주간명 체험기. 기존의 책들과는 달리 한 사람의 사주를 체계적으로 도표화시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Do It Yourself라는 제목에서 말하듯이 운명을 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초심자는 물론 전문가도 자신의 이론과 대조해가면서 새롭게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케이스 스터디 북이다. (삼한출판사刊·값16,000원)

(정리=安興燮기자)

동문의 소리

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

수학능력시험이 있기 며칠 전에는 시험문제가 예년보다 어렵다고 하더니 막상 시험이 끝나고 나니 문제가 너무 쉬워 변별력이 없다고 야단이다. 요즘 와서 대학 측은 수능시험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논술시험을 어렵게 하여 학생을 선별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난이도는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일까?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TOEFL이나 GRE 등을 관장하는 미국의 교육평가기관(ETS)은 통계학적으로 조정된 점수(Adjusted Score)를 사용하거나 누적백분율(percentile)로 응시자의 성적을 나타낸다. 더구나 매 시험마다 일정량의 새로운 문제를 응시자가 모르도록 포함시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검증을 위하여 포함된 새로운 문제는 당

회 수험생을 평가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 즉, 새롭게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문제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것만 다음에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이나 내용은 교육학이나 연구방법론 등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은 채 갈팡질팡하는 꼴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더구나 수능 성적만으로는 학생을 선별할 수 없으니 논술시험 점수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크게 하여 학생을 선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수능 성적은 학생 선발과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쓴



洪性宣(77년 藥大卒)
중외제약 임상연구실 이사

1800~2000자의 에세이가 12년 동안의 학업성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법은 상술하지 않겠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즉, 통계학적으로 조정된 점수를 사용하여 합산하면 된다. 그러면 난이도에 대해서 매번 감론을박할 필요도 없고, 각 과목별 평가의 비중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수학능력시험을 여러 차례 응시할 수 있게 하여 수능시험의 도박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하겠다.

두 얼굴을 가진 컴퓨터

예전에 이런 말을 자주하곤 했다. 컴퓨터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그 삭막한 세상을 어떻게 견딜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그런 세상이 오면 난 분명히 방관자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일은 컴퓨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디자인작업의 전 과정을 컴퓨터로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서, 어설프게나마 컴 작업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며 예전의 나를 떠올린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

의 작업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됐었다. 그런데 불과 몇 년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 내가 컴퓨터 없이는 일을 못하니, 앞으로의 세상은 또 얼마나 어지러운 속도로 변할까 하는 생각에 어지럽다가도, 그 무궁무진한 기능에 감탄하게 된다. 수작업이 따라 할 수 없는 그 정확함에, 그 빠른 속도에, 그 편리함에 그저 감탄에 감탄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발전하다가 복제인간처럼 신의 영역 논란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되지도 않는 비약도 해본다.

감탄을 하는 마음 한 구석에



安奇順(83년 美大卒)
동우D&C 실장

는 조그만 실수도 알아채는 컴퓨터의 그 정확함에 숨막힘을 느끼면서, 사람의 따뜻한 감성을 가질 수는 없을까 하다가도, 『안돼, 안돼, 컴퓨터가 사람을 능가하는 감성을 가지면 안돼! 내가 왜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지? 그런 세상은 난 정말 못 견딜 꺼야』하고 혼자 중얼거린다.

지식인이 침묵하는 시대

현대사회는 정보화시대고, 전 문화시대이다. 복잡 다난한 현대사회의 각종 문제는 그 분야에 대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취합의 선행과 함께 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견해, 분석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특히 밀레니엄 시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각종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더더욱 그 정보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정보의 발전 및 자연과학분야 지식인들의 연구노력은 그에 상응하는 부의 지급(각종 특허 및 벤처사업 등)하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분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정보의 발전이나, 인문·사회과학분야 지식인들(물론 자연과학분야의 지식인들도 인문·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사고를 공유한다)의 연구노력은 지지부진하며, 뚜렷한 목표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연과학의 발전을 통한 물질문명은 향상되고 있으나,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을 통한 정신문화의 발전은 별달리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과거 서구사회의 혁신적인 산업혁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이전 르네상스라는 인문·사회학적 정신혁명 및 민주제도 발전을 통해 이뤄진 터전 속에서 꽃피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인문·사회분야의 지식인들이



鄭勳卓(90년 法大卒)
변호사

빵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아무런 발전도 기대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연과학 및 물질문명의 파탄이 초래될 것이다. 인문·사회분야의 지식인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실종된 가치관과 철학의 이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는 인문·사회분야의 지식인들에게 그 기본토양을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2000년 9월 27일~11월 16일·一般：2000년 9월 28일~11월 16일〉

회 장 단

▲고문 張禮準

▲부회장 洪錫炫= 1백만원

상 임 이 사

▲李廷植 환대원동창회장= 20만원

이 사

◇社會科學大學

조현래77 최정운79

◇自然科學大學

김상수83

◇家政大學

김구자64 정영선73

◇看護大學

송미순74 엄미란82

◇工科大學

강영국63 고원호48 고유문65
고인석64 박은영69 권수용62
김경석70 김교성55 김국진70
김도심58 김명년57 김상주56
김석기64 김연식60 김영철63
김용덕58 김유도62 김은영61
김정철56 김종찬58 김지섭58
김창세65 김천욱59 김충세68
김대섭57 김태희69 명태현50
박경호72 박노성77 박덕철61
박찬섭60 박창선65 박평주42
설원길51 성백전66 송명호65
송철조63 신현석60 양승택61
양정웅68 여인희63 여종기70
오성근62 오세철60 오인석62
원제혁64 원종환56 유재소65
윤병권61 윤석민87 윤여익71
윤종구56 이 철72 이광호70
이규재71 이금석64 이기준61
이박일70 이상권70 이상현74
이성규64 이성렬55 이수훈60
이승원47 이웅희49 이원국52
이윤우69 이재욱65 이종진59
이종훈57 이형도67 임무현65
임승근67 정병일54 정인식78
정일모57 조경환73 조규종50
조병우64 조창휘63 조태식77
최용일67 최운재56 최원갑60
최창영69 하명수64 한수은59
한재소75 함명호62 현명호73
현봉섭54 황 현76

◇農科大學

고재균55 구자용72 권오준69
김영종64 김유인70 김장호70
김진팔52 김현구59 박정수69
서기호64 손원교70 심완조61
유 황60 유영준65 이병일63
이상규59 이선길79 정민섭63
정윤환62 정주영74 한갑준56
함종한70 홍성표62 황경구61

◇文理科大學

고석윤50 김경한68 김병일64
김선길53 김영배66 남상진49
노건일64 노원욱59 노재봉57
류종탁61 민병천56 민영기61
박경석59 반기문70 서상섭72
손대연56 신호순61 유영익60
윤 식64 윤명중57 윤석현49
이경재63 이기원56 이성덕60
이영원63 이영훈68 이정운58
이주용53 장내식69 정서구69
정소성69 정순원75 정춘택58
주진우74 진홍순74 최규영65
최서영58 최성규64 허 선68
현승일66 황인광67

◇美術大學

곽원모60 권순형55 김 태55
박숙희62 백현욱65 윤형규63
이용환54 정창섭51 주민숙68

◇法科大學

강병호66 강상원55 강현중66
고광석66 고왕석61 금진호58
김경철62 김경철68 김경한66
김도언63 김동훈61 김영일65
김영재62 김용균64 김용호44
김정후61 김종대72 김창균61
김창근55 김태훈72 김학원70
김형배55 김형선62 김흥현71
김희근77 동 훈57 명호근65
박국수71 박석인72 박용우64
박일재59 박재경61 박제윤59
박주선74 박준서64 배경숙54
배용범77 백덕렬71 백영엽77
서경석71 서규택55 손근석63
송진훈65 신명호66 신성철69
신억현63 신현일81 신화중79
안길룡73 안성철63 엄낙용71
오동섭69 오영권73 원철희62
유길수68 유덕택58 유재선67
윤교중72 윤세리76 이 돈65
이계전68 이국주68 이동명79
이동춘63 이성로68 이승우79
이영오70 이윤승75 이인제72
이재성73 이정무64 이정빈60
이종상53 이휘영57 임규운57
임승관74 임영민68 임창원68
임채홍56 장기욱61 장창호67
정경용69 정귀호63 정명택64
정성호85 정옥균52 지홍원64
천현주71 최두형55 최송화63
최영광64 추영일65 허규철67

◇師範大學

강규석62 김덕순63 김영봉61
김재은54 박희숙60 신용일57
신현식60 오경환72 오병문52
오영석69 유병립56 유봉호52
이돈희60 이봉현60 임장규62
임향순64 전성택58 전용근78
정광삼63 조규삼54 최태상57

◇商科大學

강신돈73 강정구66 고학모60
권혁태57 김만경57 김범일73
김상희70 김시담62 김용기62
김정철74 김종국59 김현곤67

박길부63 박명식63 박봉흠72
박태영66 박흥기74 서상록63
손병두64 손석주52 송병락63
송주식52 신평렬70 심 훈66
심원택43 심재석68 심재선64
심형섭63 안경태75 여현동62
오준희64 우용해51 우종일69
유명희61 유석홍65 이계안75
이계욱67 이대원65 이만식57
이명기63 이병식61 이병욱74
이상경55 이상익66 이상호61
이은방61 이일훈60 이정식73
이준근65 이한섭60 이한웅58
전영수55 전장원60 정두채62
조 원62 조병해57 조의진65
지치본62 지현균64 최종원59
최종인65 최홍락61 추한식58
하진오64 한재봉64 황낙주65

◇獸醫科大學

김만영54 김선중66 김성겸79
김종영62 목선균73 신태호71
어중원69 이완우71 이재철56
정대연59 정원공57 조병왕65
조상래75 조영웅67 조형기58
조후익63 최영일56

◇藥學大學

고대승58 김상조58 김선중65
김영남66 김영택65 김영호58
김일성64 김장숙59 김종수58
김효중79 남충우66 박시우73
우중근65 이상은58 이종지67
이장기59 정순간62 지현석60
최덕일65 홍정근53

◇音樂大學

박인수68 양은희75 장혜경56

◇醫科大學

강영민69 기의식48 김광희61
김영균49 김원석65 김진규76
김홍규71 도광찬71 박대환61
박상용63 박신근68 박용현68
박우택62 박지홍75 박효일64
서병준54 서재학63 송만준57
신성우53 신창재78 심보성49
은희철74 이명철73 이상문71
이성준61 이용국65 이의석79
이정환56 이창환49 이한구54
이훈용78 정규병71 정종환62
지영일66 최규완61 추광철66
한명렬51 한승수62 한진석78
한홍무62 홍창익47

◇齒科大學

강대건57 김 성66 김길태71
김상숙77 김성수74 김영철67
김중훈73 김지호65 김치영80
김홍석65 남용욱55 박형기59
신일규71 유재석74 이건설58
이병태67 이봉재61 임동욱73
임성균65 임장섭58 전태수60
정원용58 정종평69 최재함51
홍예표71

◇大學院

김응진49 박충생66 장경찬60

◇經營大學院

김선대72 김운택70 유진성67
이경훈68 이만상67 이재호70

◇教育大學院

송향섭66

◇保健大學院

김미배78 김송진72 김종오82
김초강72 윤용길70 이양재62

◇司法大學院

강운호70 이진개69 이우길66

◇新聞大學院

강민창70

◇行政大學院

김권수71 김성규72 김익영68
백상승71 서재근64 이계탁72
주병덕79 황두영69

◇環境大學院

박상우75

일 반

◇人文大學

강상진67 고용자83 권인한65
김 영92 김경자86 김능구88
김만중78 김봉규80 김봉현79
김사인80 김상우98 김영균66
김영민69 김주연86 김준식78
김학래78 김향숙86 박명규67
박철순63 박춘영87 박현철66
백윤범80 변원일76 석종욱77
손영진98 신중진96 심용하76
안관주67 안범진90 양순호80
양원철95 오 준78 오보영78
원종례77 유동석81 윤상필91
윤성근93 윤찬원78 이경원63
이기봉88 이기열87 이기학87
이동근80 이선규81 이영숙90
이영훈79 이정복90 이정승88
이정호76 이종범80 이종은99
이주형85 이춘자88 이혜원67
임운봉98 임홍재78 장재연94
장정애86 장한기80 장희구66
전경재85 정 인78 정규용90
정두영88 정영철84 정은임91
정종욱91 정형일84 조성은92
조연수93 조영식92 조원희94
조응래77 조철원80 조혜영88
조홍욱77 주영두85 최윤호92
최정선88 추희엽89 한민구79
한봉희81 한영수85 한혜원67
홍성민81 홍현표89

◇社會科學大學

강병일84 강종표83 권혁규88
김경철97 김대희85 김만현76
김미리87 김소용83 김용준86
김우철83 김이환76 김익성79
김재형83 김정상98 김진덕95
김진욱92 김진호88 김태복84
김태윤98 김형민80 남동우93
박성호87 박종환91 서영찬94

서종원81 설대수86 성낙제93
성은지88 손광락78 손신명82
손현덕87 송명달88 송상우90
송석준87 송대섭80 신석하89
안상함81 양권모89 양호승78
엄태종65 오재영88 유동익81
유병서95 유재한77 윤원영88
윤찬영65 이 근83 이근태89
이동구90 이만수80 이병호82
이상두86 이상원88 이윤섭89
이재구80 이재기79 이재영78
이재진67 이정태94 이진규89
이진우78 이흥구79 이흥규94
임상훈98 임재금98 장영진89
장윤종82 정 현91 정민오87
정상우92 정성윤92 정예모84
제승완95 조 신82 조성기92
조영준96 조인식89 조진현67
채명길69 최상규86 최원식67
최정선87 표영선91 한 신89
한성희95 한정욱97 허인정95
황민연78 황정욱89

◇自然科學大學

고방원99 구자용81 권재명94
권창욱99 김경국99 김기철85
김남수77 김대영89 김민지94
김상길89 김연하90 김정근67
김지홍86 김철호78 김철영80
김홍만80 노동진94 노승권83
문소영99 민만기97 박동완77
박동운98 박병관98 박성준89
박영아83 박충원91 박현미87
백병화79 서의훈78 설부경69
신현철84 안대영77 양재현76
유석동90 유선일89 유영만88
유한성85 이 유85 이병재78
이순열83 이승구83 이시용80
이은경81 이재범87 임기수77
장영록86 장태식80 전덕영76
정명관67 정민걸83 조유현88
조창근85 조창제85 최성아89
최성화89 최제영84 표현봉86
함광선79 허 남86 홍기표89
홍덕기81

◇家政大學

강영애99 강영자65 강은영88
김미정88 김선미75 김영아78
김영애72 김영희74 류희숙92
박순이74 박영애73 박인자66
방남순74 방형애67 백선자64
소윤희79 손정민85 윤명숙71
이매리88 이미영87 이봉욱60
이신영62 이신영86 이정규79
이혜련77 임현숙72 장연수94
전영숙82 정해자65 조규연62
조현순86 조혜경74 최윤정88
최윤주93 한 원75 한순옥61
황혜신88

◇看護大學

구혜정79 권오겸59 권희경97
김 숙93 김명혜72 김묘경90
김영란59 김정란87 김지현94
김현숙85 김현아83 김혜경79
남승남90 문명희82 박상련72
박양자64 박영임77 박은영78
박지영95 변남수88 유문자68

유재희⁷⁰ 윤미선⁸² 이명혜⁷⁹
이선민⁹³ 이영희⁶² 이용아⁵⁵
이은희⁷⁸ 이정립⁹² 이추월⁵⁴
장근숙⁷⁷ 장순희⁵⁹ 장정화⁷⁶
정 한⁷⁹ 정숙자⁶⁴ 정진숙⁹⁰
조동란⁷⁰ 지인숙⁸¹ 진현주⁵⁷
채명아⁸⁶ 최수전⁹² 최완희⁸⁸
하양숙⁷¹ 허성이⁸⁷

◇經營大學

강명수⁹⁵ 강승문⁹⁵ 강준수⁷⁹
고광호⁸⁹ 고동운⁸⁰ 고웅조⁹⁸
고종권⁸⁵ 권오성⁹⁰ 권혁성⁹¹
김동현⁹⁰ 김봉오⁸² 김선기⁷⁸
김연진⁹⁸ 김영권⁸⁴ 김정균⁹⁴
김진성⁸⁹ 김학재⁹⁸ 김형희⁹³
김효준⁹⁵ 노석균⁸⁷ 도철환⁸⁹
마영남⁷⁵ 박공순⁸⁷ 박광민⁸⁰
박철희⁹⁸ 박희수⁸⁹ 백우현⁷⁸
백주한⁹⁹ 서준호⁹⁰ 석도정⁷⁶
송진호⁹⁵ 송호찬⁸² 신승철⁹⁵
양지훈⁹⁵ 원효성⁸³ 유 인⁸³
유병오⁸⁴ 유태우⁸³ 윤태훈⁷⁷
이동원⁹⁶ 이동훈⁹² 이상수⁷⁸
이석영⁸³ 이신철⁸⁶ 이용석⁸⁵
이재우⁹⁷ 이재형⁸⁵ 이정은⁹⁷
이제영⁸⁶ 이종민⁹⁷ 이종인⁷⁷
이준원⁹⁸ 이해성⁷⁷ 이혁주⁷⁶
이현철⁸⁷ 이호선⁷⁹ 이희준⁷⁸
정성진⁹⁶ 정연식⁸² 정용재⁸⁷
정태수⁸¹ 정홍철⁹⁹ 조도근⁹¹
조민식⁹⁰ 차승원⁹⁷ 최석원⁷⁷
최원국⁸⁰ 최원일⁹⁶ 한희진⁹²
홍전기⁹⁰ 홍종욱⁹⁹ 황재승⁹⁸

◇工科大學

강 형⁸² 강경호⁵⁶ 강명수⁶¹
강문석⁷⁴ 강승무⁶⁹ 강승혁⁸⁹
강연성⁷⁸ 강영진⁶⁷ 강왕구⁹²
강원필⁸⁷ 강인엽⁸⁵ 강대삼⁶⁶
강태원⁸⁵ 강희용⁷³ 고 정⁸⁵
고근희⁵⁸ 고승기⁸⁰ 고승환⁶³
고시현⁷⁵ 고영주⁷⁹ 고영태⁷⁹
고정석⁹⁶ 고준수⁷⁶ 고준수⁸⁸
곽광우⁶³ 곽덕훈⁷⁶ 곽동수⁵⁷
곽순섭⁷² 곽영조⁶² 구자윤⁷⁵
권두섭⁶¹ 권수봉⁷⁹ 권영주⁷⁵
권오석⁶⁴ 권오양⁷⁶ 권용수⁸³
권일건⁸² 권정태⁸⁸ 권장현⁷⁷
권희덕⁷⁸ 김 용⁶⁸ 김 철⁷⁷
김건남⁷⁷ 김경수⁸¹ 김경식⁸²
김경웅⁸⁷ 김경원⁸³ 김경호⁷⁹
김계추⁶³ 김관홍⁷⁹ 김광건⁷⁴
김광명⁶² 김광백⁷⁵ 김광제⁶⁷
김광호⁷⁷ 김구권⁵⁷ 김권집⁷⁷
김규철⁷⁶ 김극수⁷⁸ 김기원⁶³
김기환⁹³ 김낙산⁸⁰ 김낙원⁹⁵
김남희⁷⁴ 김대익⁷⁸ 김덕근⁷⁷
김동관⁸² 김동규⁶⁴ 김동상⁵⁹
김동수⁷⁹ 김동필⁴⁹ 김동하⁷⁹
김두천⁶⁷ 김두형⁸² 김락성⁶⁰
김명린⁶⁵ 김무조⁶³ 김문기⁸¹
김범준⁹⁵ 김병기⁸³ 김병수⁹⁴
김병재⁷³ 김병주⁶⁵ 김상기⁸¹
김상기⁸⁴ 김상태⁹⁴ 김석근⁵⁷
김석현⁵⁹ 김신국⁸⁹ 김성보⁸⁸
김성윤⁹³ 김성준⁷⁴ 김세진⁶⁹
김수철⁷³ 김순환⁸⁰ 김승웅⁸⁴
김승희⁸⁵ 김양일⁶⁰ 김영균⁷²
김영수⁶⁶ 김영오⁸⁹ 김영욱⁹⁰
김영인⁷⁹ 김영환⁹⁰ 김영환⁹⁴
김영훈⁸² 김용길⁸⁰ 김용직⁵⁵
김웅기⁶⁵ 김원서⁸¹ 김원일⁶⁷
김은철⁸¹ 김인호⁵⁰ 김인호⁹⁶
김임성⁷⁸ 김자영⁷⁸ 김장영⁵²

김재선⁸⁶ 김재섭⁸³ 김재원⁶¹
김재창⁶⁹ 김재현⁶⁶ 김재형⁵⁵
김재환⁸⁷ 김정수⁷⁰ 김정수⁷³
김종각⁶⁵ 김종태⁵⁴ 김종호⁷⁶
김종호⁸² 김주현⁶⁴ 김주호⁵⁶
김중연⁷⁴ 김지현⁹⁵ 김진석⁹³
김진영⁷² 김진원⁷² 김진윤⁷⁹
김진일⁷⁵ 김진철⁹⁴ 김진표⁵⁶
김진호⁹⁸ 김창경⁶³ 김창선⁶⁴
김철성⁷⁷ 김철수⁷⁰ 김청수⁷⁶
김춘식⁶¹ 김충섭⁶⁵ 김대욱⁸³
김태종⁸⁰ 김택영⁸⁶ 김풍오⁷²
김학용⁹¹ 김한곤⁶⁵ 김한상⁸³
김한영⁹⁷ 김한중⁷² 김항근⁵⁶
김현일⁷⁴ 김현준⁸⁹ 김현진⁶⁵
김형섭⁹² 김형식⁷⁴ 김형주⁹³
김호수⁶⁷ 김호영⁹⁶ 김홍재⁸⁷
김홍주⁵⁰ 김홍섭⁶¹ 김훈식⁷⁶
김희창⁶² 나상천⁷⁵ 나인구⁵⁷
나종택⁵⁷ 나형주⁷⁷ 남근현⁵³
남성능⁸⁶ 남승의⁷⁰ 남시도⁶³
남장수⁶⁸ 남치중⁸⁴ 노광기⁸¹
노규환⁶² 노연상⁷⁴ 노원섭⁵⁹
류현욱⁹⁸ 문 광⁷⁸ 문길구⁶⁹
문상선⁷⁵ 문영환⁷⁹ 문우춘⁸²
문인삼⁵⁹ 문인수⁷² 문정삼⁵⁷
문종윤⁹⁵ 문홍식⁹² 민경익⁸⁹
만병기⁸⁰ 민병우⁷⁹ 박 순⁷⁸
박 철⁸⁷ 박건우⁶⁴ 박경종⁵⁷
박경호⁷⁷ 박관철⁷³ 박광용⁷⁵
박규찬⁸³ 박기병⁸¹ 박기석⁶⁵
박기철⁸⁰ 박노철⁷⁸ 박노희⁶⁴
박대휘⁷⁹ 박동문⁸¹ 박민식⁷⁵
박민우⁷⁴ 박병중⁶⁹ 박병준⁸²
박봉규⁷¹ 박봉철⁸⁷ 박상진⁷³
박상진⁹⁰ 박상혁⁵¹ 박성규⁷⁵
박성암⁵⁶ 박성준⁸⁴ 박성준⁹³
박성훈⁸⁰ 박승우⁹¹ 박순길⁷⁹
박승일⁸⁵ 박승준⁸⁸ 박영근⁷¹
박영복⁶⁷ 박용원⁷¹ 박용찬⁸³
박용철⁵⁹ 박원장⁷⁴ 박이식⁷⁷
박재승⁸⁰ 박재현⁸⁶ 박정렬⁹⁸
박정석⁸⁶ 박정수⁸⁶ 박정준⁹⁸
박제승⁹⁸ 박종관⁸³ 박종술⁸⁸
박종호⁹⁸ 박준기⁷² 박준호⁷⁷
박중현⁵⁷ 박찬익⁸⁵ 박철수⁶⁵
박철환⁷⁹ 박태근⁸¹ 박항태⁷²
박현빈⁷⁰ 박형준⁹⁶ 박홍준⁷⁵
박홍근⁷⁸ 박홍철⁵⁵ 방기범⁸⁸
배근호⁷⁰ 배정희⁶⁹ 배태식⁸⁶
배형호⁹⁹ 백경구⁸⁴ 백덕현⁵⁷
백선욱⁶⁶ 백성환⁴⁸ 백원석⁹⁵
백윤해⁶² 백창욱⁹³ 변경석⁹⁷
변국립⁶⁸ 변대규⁸³ 서용원⁶⁵
서선덕⁷⁹ 서용권⁷⁴ 서용성⁹⁵
서정근⁷³ 서형상⁷⁵ 서희수⁹⁵
석영수⁷⁵ 석현수⁷⁴ 선 용⁶⁶
선희복⁸⁴ 설인환⁸⁵ 성건경⁸¹
성규동⁸¹ 성봉주⁷⁵ 성정길⁷⁶
성태호⁷² 소봉영⁵⁶ 손계욱⁷⁴
손만석⁷⁴ 송광욱⁷⁰ 송기선⁸⁴
송미정⁸⁸ 송상현⁸⁶ 송선희⁶¹
송승영⁹² 송용호⁷⁸ 송원오⁶⁵
송재병⁷⁰ 송재용⁹³ 송종섭⁶¹
송지오⁷⁰ 송춘영⁷¹ 송희국⁷³
신갑식⁶² 신근식⁷⁰ 신동목⁸⁴
신동용⁹⁸ 신원동⁹⁰ 신원용⁶⁵
신차영⁶⁸ 신충섭⁷² 신대형⁸⁵
신현길⁷⁴ 신현철⁸⁶ 신형균⁹⁰
신희범⁷⁹ 신희현⁸⁸ 심교언⁹³
심세진⁶⁵ 안 섭⁸³ 안병성⁷⁶
안병의⁸⁶ 안병훈⁷² 안상복⁸⁵
안상희⁷² 안재영⁶⁶ 안재우⁹⁵
안태준⁹¹ 안화식⁸⁴ 양 갑⁷²
양금훈⁷⁸ 양동기⁸⁵ 양점식⁸⁶

엄승호⁸² 엄재성⁷⁷ 여운성⁸¹
오동원⁸¹ 오동주⁹⁸ 오병일⁹⁴
오상윤⁹² 오석주⁸² 오세기⁶⁹
오재승⁷⁸ 오종기⁶⁹ 오종석⁸⁷
오주석⁸³ 오창수⁵⁶ 오태규⁷⁸
옥광만⁹³ 이상룡⁷⁶ 이상선⁷²
원광섭⁸⁸ 원중호⁹⁸ 유건식⁷⁰
유건환⁶² 유광희⁹¹ 유규열⁷⁹
유동원⁹⁸ 유병석⁹⁰ 유병태⁸⁰
유복모⁶⁹ 유승문⁸² 유승준⁶⁷
유영창⁸⁰ 유재극⁵⁷ 유재기⁷⁹
유종철⁷⁰ 유종희⁵⁷ 유태용⁵⁵
윤광언⁶⁸ 윤극로⁷¹ 윤명환⁷³
윤삼훈⁹⁸ 윤석중⁷⁰ 윤석호⁵⁵
윤성기⁷⁵ 윤영식⁸⁶ 윤은모⁷⁹
윤재호⁷⁸ 윤재환⁷⁹ 윤정구⁹⁶
윤종섭⁸⁸ 윤지규⁶⁸ 윤찬영⁹⁸
윤창수⁸³ 이 석⁸⁴ 이 완⁶⁸
이건이⁶⁷ 이경택⁶¹ 이경환⁸⁴
이규재⁴⁷ 이근명⁶⁷ 이근욱⁸⁸
이기백⁴⁷ 이기선⁹⁸ 이기종⁹³
이길형⁸⁴ 이낙영⁷⁰ 이남근⁷⁷
이대휘⁶⁴ 이덕재⁷⁶ 이동호⁷⁹
이명규⁹⁷ 이명렬⁸⁴ 이명식⁵⁷
이병길⁹⁰ 이병락⁷⁵ 이병철⁸¹
이병하⁷³ 이봉렬⁵⁸ 이봉오⁶²
이봉우⁷⁹ 이봉환⁷² 이상린⁵⁹
이상영⁷⁷ 이상우⁸¹ 이상원⁶⁹
이상은⁸⁰ 이상찬⁶⁰ 이상준⁷⁶
이상현⁹⁵ 이상훈⁷⁵ 이상훈⁹⁴
이석구⁸³ 이석준⁸⁷ 이선환⁵⁶
이성훈⁸⁹ 이승구⁷⁷ 이승욱⁹⁵
이승후⁹¹ 이승훈⁷⁴ 이영근⁷⁶
이영무⁷⁸ 이영용⁹⁴ 이영우⁷⁹
이영욱⁷⁹ 이영일⁷⁰ 이영재⁷¹
이영주⁹⁸ 이영찬⁸⁹ 이영철⁶⁴
이오재⁹² 이용각⁸¹ 이용선⁷⁸
이용호⁷⁶ 이우성⁹⁵ 이우진⁶⁹
이원국⁵⁵ 이원복⁸⁰ 이원성⁸¹
이유봉⁷⁹ 이윤섭⁷⁷ 이장희⁸²
이재윤⁷³ 이재윤⁷⁸ 이재현⁷¹
이정덕⁵⁷ 이정로⁷⁶ 이정하⁵⁷
이제근⁶² 이종성⁶⁸ 이종수⁷⁹
이주성⁶⁹ 이종택⁵⁹ 이지연⁹⁹
이지화⁷² 이진교⁸¹ 이진기⁵⁴
이창욱⁷⁶ 이철주⁸⁵ 이철형⁶⁴
이충형⁷⁹ 이태민⁸⁹ 이태현⁸⁶
이태희⁶¹ 이팔갑⁸³ 이학렬⁷⁸
이학식⁶⁶ 이한봉⁵⁶ 이해건⁷⁰
이해근⁹⁵ 이현식⁹⁵ 이현우⁹⁶
이현호⁹¹ 이형수⁵⁷ 이호준⁶⁸
이호진⁸¹ 이호형⁷⁹ 이홍재⁷⁰
이희문⁵⁶ 임명찬⁹² 임영섭⁸⁰
임원식⁸⁹ 임종열⁵⁶ 임채영⁸⁷
임철웅⁷⁰ 임태균⁹⁵ 임태수⁹⁵
장 원⁸⁴ 장광열⁸³ 장도영⁷⁵
장민석⁹⁶ 장병만⁷⁴ 장상귀⁹⁰
장삼목⁸² 장성익⁹⁰ 장성호⁹⁸
장세문⁶⁶ 장순홍⁷⁶ 장용환⁷³
장인호⁷² 장철식⁵⁵ 장철현⁶²
장효섭⁶⁶ 전경석⁸⁸ 전광환⁷⁰
전구현⁶⁸ 전근주⁷⁴ 전문휘⁶⁷
전상수⁷⁶ 전순명⁶³ 전우직⁸²
전의진⁶⁹ 전재열⁸¹ 전종균⁸⁰
전종업⁸⁶ 전찬진⁶⁹ 전창선⁶⁴
전현철⁸⁰ 전홍우⁷⁴ 정 운⁹⁵
정건식⁵⁹ 정광석⁷⁵ 정광욱⁶⁰
정동철⁹² 정동학⁷⁹ 정명섭⁸⁰
정병석⁹⁸ 정봉수⁶³ 정상구⁷⁷
정성립⁷² 정수민⁷⁴ 정수성⁷⁷
정수현⁷³ 정연원⁵⁶ 정연호⁷²
정영근⁸⁷ 정영근⁶⁷ 정영근⁸⁵
정용권⁶⁸ 정용수⁹⁷ 정우식⁶⁴
정우훈⁸¹ 정운용⁹⁰ 정의효⁵⁷
정자철⁸² 정재영⁷⁸ 정진건⁷⁰

정진복⁸¹ 정진희⁸¹ 정찬영⁵⁸
정창훈⁹³ 정채오⁹⁶ 정태규⁶⁹
정해승⁸⁵ 정해식⁶⁵ 정현모⁶⁹
정형한⁵⁶ 정화규⁹⁴ 조건우⁸¹
조경래⁹⁰ 조경목⁶¹ 조광제⁷²
조규진⁸² 조남국⁷⁵ 조득호⁷¹
조병근⁷⁵ 조봉래⁸¹ 조상연⁹⁴
조성산⁸⁴ 조성제⁸⁹ 조성환⁸⁴
조순교⁷⁸ 조영근⁷⁴ 조영선⁶⁷
조영현⁹⁶ 조옥찬⁶¹ 조익표⁸²
조재광⁸⁶ 조재열⁹³ 조종삼⁵⁸
조주현⁷⁸ 조진현⁹² 조진호⁵⁸
조창한⁵⁹ 조항균⁶⁰ 주기태⁷³
주상선⁷⁷ 주성문⁹⁶ 주영섭⁷⁸
주원택⁸⁵ 진명혁⁴⁹ 채경선⁸⁷
채성기⁶³ 최 철⁸¹ 최경오⁹⁴
최광준⁵² 최근선⁵⁹ 최기호⁹⁷
최낙삼⁸¹ 최도영⁸⁷ 최동욱⁸²
최동혁⁹¹ 최명배⁷⁵ 최명진⁹⁰
최병구⁷⁹ 최병천⁷⁹ 최봉식⁷³
최석경⁹¹ 최성현⁷⁵ 최승종⁸⁷
최승철⁸⁵ 최영춘⁷⁶ 최용환⁹¹
최원봉⁷³ 최원식⁷⁷ 최원용⁸⁸
최은수⁸⁴ 최은순⁶² 최익상⁵²
최재근⁸⁵ 최재봉⁴² 최재영⁸⁷
최재욱⁹⁶ 최재웅⁸⁹ 최재호⁷⁹
최정근⁶⁹ 최창근⁷⁴ 최창학⁷⁰
최창환⁹⁵ 최치준⁸¹ 최태선⁷⁶
최태선⁸⁴ 최태현⁶³ 최형남⁷⁰
최홍섭⁸⁵ 최홍준⁶⁸ 추교승⁸⁸
하상달⁷⁴ 하영환⁶¹ 한광석⁷⁰
한병록⁴⁹ 한봉희⁵² 한상기⁸²
한상민⁹⁸ 한상욱⁷² 한상훈⁸⁹
한산화⁸⁴ 한송수⁸⁵ 한영용⁵³
한영현⁸⁹ 한원택⁷⁹ 한윤식⁷⁹
한이수⁹⁰ 한인철⁸⁸ 한종희⁸⁸
한진수⁹⁸ 한형상⁸² 허 운⁷⁶
허수웅⁶⁵ 허영부⁷⁴ 현범석⁹²
홍광표⁶³ 홍남중⁹⁵ 홍도천⁷³
홍보기⁹³ 홍성범⁶⁰ 홍성인⁷¹
홍성일⁵⁸ 홍성호⁸⁸ 홍순용⁷⁶
홍영기⁹¹ 홍재겸⁶⁹ 홍희선⁵⁸
황건선⁷⁰ 황금천⁸⁹ 황대석⁶⁵
황선영⁷⁶ 황영철⁵⁷ 황원길⁷⁰
황재연⁸⁶ 황재희⁵⁹ 황종훈⁵⁰
황희연⁷⁹

◇農科大學

강 은⁸⁴ 강명길⁶⁷ 강석원⁸⁹
강정모⁶⁹ 강철주⁶⁹ 구본길⁶⁷
구자욱⁶⁵ 권상필⁷¹ 권오원⁶⁰
권혁재⁵⁷ 김계훈⁸¹ 김공래⁸⁶
김광호⁷² 김덕영⁷⁹ 김무진⁶⁴
김병건⁹² 김병윤⁶⁰ 김복진⁶⁴
김석현⁹⁰ 김성배⁵⁵ 김양재⁸³
김연실⁸⁹ 김영규⁵⁵ 김영호⁷⁷
김완기⁶⁹ 김용섭⁷⁸ 김의철⁷⁶
김인기⁶³ 김인상⁶⁹ 김재윤⁷²
김재홍⁶³ 김정국⁴⁷ 김종국⁷⁰
김종섭⁶⁰ 김주욱⁷⁹ 김준필⁴⁹
김중경⁵⁸ 김지천⁷⁸ 김진구⁵⁸
김진옥⁵⁶ 김창성⁸⁸ 김철산⁶³
김충정⁶⁴ 김태규⁶⁵ 김후근⁵⁹
남상운⁸⁴ 남영우⁵⁷ 노경수⁸⁵
노광래⁷⁰ 노의래⁶⁸ 노홍섭⁵⁸
노희진⁸⁹ 류관희⁶⁷ 류기락⁸⁸
류석준⁸⁹ 명을재⁸⁷ 문태화⁷⁵
문헌팔⁷¹ 민욱기⁸⁰ 민재훈⁸¹
민홍진⁹² 박경호⁷² 박기진⁹³
박명규⁵⁷ 박범기⁹² 박성준⁹²
박완수⁷⁹ 박은숙⁶⁵ 박의호⁷⁷
박종현⁸³ 박준식⁷⁹ 박찬규⁸⁹
박천서⁵⁶ 박태식⁵⁰ 박관규⁶¹
박형훈⁶⁰ 박효욱⁹⁴ 박희구⁵⁶
방수자⁶⁶ 배연정⁹⁵ 변종관⁵⁶

성현경⁸⁴ 손동하⁹⁴ 손세호⁵⁷
손현수⁸⁰ 송병국⁸⁵ 송인석⁶⁰
송장원⁹⁷ 송종익⁵⁹ 송현숙⁷⁷
송환창⁴⁹ 신동수⁶¹ 신두철⁷⁴
신상혁⁵⁷ 신재문⁶⁴ 신제성⁶⁵
신태은⁸² 신현경⁶⁹ 심경보⁶⁴
심상우⁶¹ 심재욱⁵⁷ 안형진⁷⁸
양상훈⁶⁶ 양재승⁷⁴ 양환승⁴⁹
여성찬⁹⁰ 오세훈⁶⁵ 오수열⁸²
오충용⁶⁵ 오태광⁷⁸ 오현승⁹¹
원후식⁸² 유달영³⁶ 유문일⁷⁰
유주현⁸² 윤경섭⁷³ 윤기민⁷²
윤병구⁷⁹ 윤여길⁸⁷ 윤여두⁷¹
윤여홍⁸³ 윤우성⁶¹ 이강민⁹⁸
이강세⁶⁴ 이계은⁶⁰ 이광호⁶⁸
이군자⁶⁷ 이규형⁵⁴ 이근상⁵⁸
이기조⁶⁷ 이기종⁶⁵ 이덕남⁷⁴
이덕선⁷⁷ 이두이⁷⁰ 이만복⁶⁰
이미순⁶⁰ 이병천⁵⁹ 이병철⁶³
이병호⁹⁰ 이상인⁶⁵ 이상주⁹¹
이성종⁶⁷ 이세연⁸⁴ 이세웅⁷⁹
이수만⁷⁸ 이순욱⁷⁴ 이순형⁷⁴
이시규⁸⁰ 이용득⁵⁷ 이우석⁶⁵
이우종⁸⁵ 이유섭⁹³ 이인호⁵⁷
이재영⁵⁶ 이종록⁴⁹ 이종린⁷⁹
이중훈⁵⁴ 이철근⁷⁶ 이철승⁹⁵
이춘영³⁹ 이택구⁵⁹ 이택규⁶⁷
이풍우⁶¹ 이학로⁷² 이형주⁸⁸
이회영⁷⁹ 임백빈⁷⁷ 임영태⁷⁷
임용섭⁹⁴ 임종문⁶⁴ 임종성⁷⁴
임채원⁸⁶ 장정동⁵⁵ 장지훈⁹⁸
전우방⁶¹ 전재성⁷⁹ 정기홍⁶²
정동원⁸⁵ 정동포⁶⁹ 정봉구⁵⁹
정상용⁹⁷ 정성권⁹⁶ 정순오⁷⁸
정영근⁹² 정용철⁹² 정정갑⁶⁶
정진호⁴⁹ 정춘희⁶³ 정충남⁶⁴
정태수⁸⁹ 조병주⁸⁵ 조병찬⁷³
조성인⁸⁴ 조수경⁷⁶ 조종수⁷⁰
조한욱⁵⁷ 주영희⁶¹ 차경섭⁹⁷
채제전⁷² 최경화⁶⁸ 최상배⁷⁹
최승열⁷⁹ 최승주⁶⁴ 최언호⁶⁶
최언호⁷⁸ 최영해⁷¹ 최영호⁶⁹
최원개⁵⁴ 최죽송⁵² 최춘숙⁸⁹
최현섭⁷³ 태용문⁸⁶ 하인환⁵⁵
하재은⁸⁵ 한상률⁷⁶ 한상봉⁶³
한중석⁶⁵ 한중희⁶¹ 한해룡⁶⁰
한호성⁹⁶ 허순호⁸⁸ 현중섭⁶⁹
홍성주⁹⁷ 홍성철⁹⁶ 황갑수⁵²
황건식^{67</}

박양호⁷⁵ 박영혜⁶⁵ 박용우⁷¹
 박용호⁵³ 박원석⁷⁵ 박재우⁶⁸
 박종민⁵⁸ 박종상⁷⁵ 박태봉⁶⁸
 박태환⁵⁸ 서기립⁶⁰ 서병철⁶³
 서의규⁷² 서인수⁵⁴ 서종호⁶¹
 손보기⁴⁷ 손원경⁵⁹ 손창조⁷⁵
 송민⁶³ 송규정⁶⁷ 송덕희⁵⁶
 송성원⁶⁵ 송용진⁷² 송태호⁷²
 송희성⁶⁰ 신규철⁵⁷ 신대철⁷⁴
 신섭중⁵⁶ 신이현⁵⁶ 신장호⁶³
 신재하⁶⁰ 신중성⁷⁴ 신창우⁵⁷
 신화영⁵⁹ 심문규⁷³ 심현철⁷²
 안상경⁵⁸ 안현수⁷³ 양갑석⁶³
 양승영⁶³ 양철주⁶⁵ 엄수현⁶⁴
 오권태⁶² 오동휘⁶³ 오인환⁶⁴
 오호원⁶⁷ 온준철⁶⁸ 우삼택⁷²
 유선희⁶⁹ 유은상⁶⁸ 유재갑⁷⁰
 유재천⁶¹ 유홍선⁶⁰ 윤규호⁶⁴
 윤무섭⁵⁸ 윤생남⁶⁴ 윤성구⁷⁴
 윤재문⁷⁰ 윤정목⁷² 이진⁶⁴
 이광호⁶⁸ 이기백⁴⁷ 이기상⁷⁵
 이덕길⁶⁶ 이동수⁶² 이병종⁵⁶
 이부식⁶⁶ 이상근⁶³ 이석렬⁶⁰
 이세경⁶⁹ 이수우⁵² 이영록⁷⁰
 이원세⁷⁵ 이재영⁷⁴ 이정린⁴⁸
 이정숙⁶¹ 이정자⁵⁰ 이종건⁷⁰
 이종국⁶⁸ 이종무⁷¹ 이종혁⁵⁵
 이효량⁶⁷ 임공례⁵⁸ 임지순⁷⁴
 임창근⁶³ 장동식⁵⁵ 장정형⁶⁷
 장호완⁶⁹ 전영표⁶⁰ 정남⁶⁴
 정광화⁷⁰ 정귀래⁶⁷ 정낙찬⁷³
 정미자⁷⁵ 정복근⁶⁴ 정순창⁷³
 정용승⁶² 정윤용⁷¹ 정의용⁶⁸
 정인보⁴⁹ 정인용⁶⁰ 정재봉⁶⁴
 정채현⁷³ 정대식⁶¹ 정태훈⁵³
 조동현⁵³ 조모형⁶¹ 조성만⁷⁴
 조철화⁵⁵ 조한제⁷⁴ 조홍래⁶⁷
 지주선⁵⁸ 채훈⁵⁴ 채기원⁵⁹
 천규석⁶⁵ 최동진⁵⁸ 최문석⁶⁷
 최상일⁵³ 최선일⁶³ 최시중⁶³
 최영호⁶¹ 최인승⁶³ 최종덕⁵⁶
 최희조⁷¹ 한기욱⁵⁸ 한기호⁶¹
 한상준⁴⁸ 한성교⁵⁸ 한승주⁶²
 한영주⁷² 한정인⁵⁵ 현계순⁶⁰
 홍승수⁶⁷ 홍영남⁶⁴ 황별연⁶⁴
 황우홍⁵⁸

◇美術大學

강명희⁷⁷ 강보경⁹¹ 강은혜⁹⁶
 계동훈⁶³ 고병복⁶⁰ 고영훈⁹⁹
 공태환⁵⁹ 광대영⁹² 광준희⁹⁹
 광한익⁵⁷ 구성호⁹⁰ 권미경⁸⁶
 권지혜⁹⁷ 권혁복⁸⁶ 길준경⁸²
 김경선⁸⁵ 김경애⁸⁷ 김민기⁷⁸
 김선영⁸⁸ 김선희⁷² 김성윤⁸⁶
 김수연⁸⁹ 김수영⁸⁶ 김영립⁸⁷
 김용택⁸⁶ 김재윤⁶¹ 김정혜⁶⁵
 김정희⁸⁵ 김지수⁹⁹ 김창세⁷⁸
 김준이⁶⁵ 김태훈⁸⁸ 김현미⁹³
 김현영⁹⁹ 노숙자⁶⁶ 민경우⁷⁰
 민병복⁵⁹ 박광필⁹⁰ 박상희⁸⁵
 박성완⁶² 박소영⁹⁹ 박연선⁹⁷
 박영근⁸⁸ 박재동⁷⁶ 반정원⁸⁹
 백민⁸⁷ 백수현⁹⁶ 백연수⁹⁸
 백한수⁹¹ 서원영⁹² 서현우⁹⁸
 손해경⁸⁸ 송윤희⁵⁸ 심경희⁹⁹
 안기순⁶³ 오창규⁹⁵ 우병탁⁸⁴
 우주현⁹³ 유인수⁷⁰ 유호종⁸⁵
 윤호섭⁶⁶ 이혁⁹⁶ 이경자⁶¹
 이금령⁸⁰ 이기향⁷⁹ 이길룡⁶⁵
 이명희⁷² 이봉렬⁶³ 이봉숙⁶⁷
 이상길⁹⁰ 이상복⁷⁷ 이성은⁸⁶
 이영수⁹⁹ 이영진⁶⁰ 이목준⁹¹
 이원주⁶⁹ 이은화⁷² 이준호⁹⁹
 이준환⁹⁵ 임경선⁹⁴ 임방자⁶³

전진희⁸⁰ 정병구⁷⁰ 정상원⁶⁴
 정원기⁸⁸ 정의철⁹⁵ 정재영⁸⁶
 정탁영⁶⁰ 정형택⁶⁰ 정효진⁵⁶
 조국원⁶⁵ 조봉구⁸² 조수호⁴⁷
 조은숙⁸¹ 지경희⁸² 지승진⁹²
 진광산⁶⁶ 진진숙⁶⁶ 차시은⁹⁸
 최상란⁶⁵ 최예심⁷¹ 최윤아⁹⁶
 최진주⁸⁵ 최홍철⁹⁶ 하재경⁸⁹
 허진⁸⁵ 허수영⁹⁹ 현대진⁹¹
 현수미⁹² 홍경희⁷⁰ 홍성문⁵⁴
 홍현승⁹⁶ 황남채⁷⁵ 황우철⁸⁸

◇法科大學

가문일⁹⁸ 강문성⁵⁶ 강문종⁷⁰
 강병연⁶¹ 강석균⁵⁴ 강성목⁵⁶
 강신철⁷⁰ 강재현⁸⁴ 강태형⁶¹
 강현안⁷⁸ 경대수⁷⁹ 경우근⁷¹
 경익현⁶¹ 고대은⁶² 고영한⁷⁸
 고의영⁸¹ 광무근⁷⁸ 광영욱⁷²
 구남수⁸⁵ 권경식⁵² 권병현⁶³
 권영순⁵⁵ 김창⁸⁷ 김경만⁶⁴
 김경선⁸² 김관재⁷⁵ 김규병⁷⁵
 김기완⁶⁴ 김남수⁶⁸ 김남식⁶¹
 김대웅⁶⁸ 김두표⁷³ 김부식⁸⁷
 김상구⁵⁹ 김상철⁶⁵ 김상태⁷⁰
 김상호⁷⁶ 김성엽⁸⁷ 김순중⁵⁷
 김시현⁸³ 김시형⁶² 김연곤⁸⁹
 김영상⁵⁹ 김영철⁶⁸ 김영태⁷⁶
 김용길⁷³ 김용래⁶⁷ 김용문⁷⁴
 김윤구⁵¹ 김윤근⁶⁷ 김윤성⁸¹
 김익권⁴⁷ 김인승⁵⁴ 김재수⁶⁴
 김재업⁶³ 김재훈⁸⁰ 김정삼⁷⁶
 김정현⁶⁰ 김종일⁵⁶ 김종춘⁹¹
 김종호⁸⁴ 김주옥⁵⁷ 김주인⁶⁶
 김주현⁸⁹ 김중건⁴⁹ 김지수⁸⁵
 김지영⁸⁸ 김창호⁶⁴ 김창환⁶¹
 김천우⁸¹ 김현석⁸³ 김희주⁸⁸
 나풍운⁶⁸ 노부호⁷⁵ 류근석⁶⁹
 류두현⁸⁵ 명동성⁷⁷ 문상익⁵⁴
 문중관⁶⁴ 문형배⁸⁷ 문호철⁸⁸
 민영문⁷⁶ 박동운⁴⁴ 박두현⁵⁹
 박문태⁸¹ 박봉규⁷⁴ 박상일⁸¹
 박성귀⁷⁵ 박영준⁷⁰ 박윤창⁷⁶
 박재윤⁹⁸ 박재태⁸⁵ 박종규⁷⁰
 박종흡⁶⁶ 박준수⁶⁵ 박진순⁸⁴
 박학립⁸⁴ 박해봉⁸⁷ 박현순⁷⁷
 백린⁶³ 백성일⁸⁵ 백현기⁷⁵
 변선종⁸² 변웅재⁹³ 봉욱⁸⁸
 서문각⁴⁶ 서상원⁶¹ 서상현⁵⁵
 서영태⁶³ 서정우⁶⁵ 서태윤⁶⁴
 서헌진⁶⁴ 서희석⁷⁵ 성기창⁷⁰
 성문용⁶⁷ 성영수⁶⁸ 소철룡⁷²
 손선규⁶⁴ 손수일⁷⁸ 송영식⁶⁶
 신동수⁶³ 신승현⁸⁵ 신승남⁶⁶
 신영길⁶⁵ 신용우⁶⁴ 신종현⁷⁴
 신진민⁶⁴ 심광수⁶³ 심영수⁶⁴
 심재갑⁵⁶ 심창섭⁷⁷ 안기영⁹⁶
 안지선⁹² 안창수⁵⁷ 안창식⁵⁷
 양명조⁷³ 엄진현⁵⁵ 엄인섭⁶⁷
 오강근⁶⁸ 오동수⁴³ 오병두⁷²
 오석준⁸⁴ 오석환⁵⁵ 오시열⁸⁰
 오연균⁸⁰ 오윤경⁶⁸ 오현규⁹²
 원은섭⁶⁷ 유현⁶⁸ 유병욱⁸³
 유성욱⁹² 유영상⁸⁶ 유완재⁶²
 유원규⁷⁵ 유효봉⁶⁴ 윤금중⁵⁴
 윤덕규⁶¹ 윤수길⁶¹ 윤영철⁶¹
 윤용근⁸⁶ 윤정석⁵⁹ 윤종현⁸⁵
 윤진영⁷⁴ 이현³⁷ 이진행⁸⁵
 이경호⁷³ 이근관⁸⁶ 이근윤⁸³
 이기택⁸² 이도조⁶⁹ 이민수⁵⁵
 이병기⁷⁵ 이병돈⁸⁰ 이상철⁶³
 이상철⁸³ 이상훈⁷⁸ 이성호⁸²
 이순우⁶⁰ 이영애⁷¹ 이영원⁶⁵
 이영진⁷¹ 이영학⁶² 이우근⁷¹
 이우상⁷⁰ 이일주⁸⁴ 이임수⁶⁴

이재덕⁸⁶ 이재현⁷⁴ 이종훈⁸⁵
 이준규⁷⁶ 이지수⁸⁶ 이진구⁷⁸
 이진항⁶¹ 이철신⁶⁴ 이춘성⁷⁸
 이춘식⁵⁶ 이태식⁶¹ 이학무⁵⁹
 이학성⁸¹ 이형욱⁶⁴ 이호일⁸⁵
 이홍규²⁹ 이희복⁶² 이희석⁷⁶
 임완규⁶⁹ 임재우⁸⁶ 장서영⁷³
 장준혁⁹¹ 전영삼⁷⁹ 정창⁶⁵
 정경영⁸³ 정구환⁷⁷ 정기수⁶⁶
 정명호⁸⁰ 정승철⁶⁷ 정영철⁷⁸
 정인숙⁸⁵ 정진국⁷⁴ 정진영⁸⁴
 정진오⁷¹ 정희윤⁶⁶ 조대환⁸⁶
 조동섭⁸¹ 조복행⁷⁸ 조정근⁸¹
 조준웅⁶⁷ 조현발⁷² 조현수⁸²
 진형균⁸¹ 최거훈⁸⁰ 최귀인⁶⁰
 최명의⁷⁶ 최병철⁵⁷ 최순철⁵⁹
 최정덕⁶⁵ 최주영⁹¹ 최준희⁸⁹
 하광호⁷⁷ 한계환⁴⁹ 한규완⁵⁸
 한득추⁵⁹ 한용기⁶² 한원도⁶⁰
 함민식⁶⁴ 함철훈⁷³ 현복수⁵⁸
 현대우⁶⁶ 호영진⁶⁰ 홍경식⁷⁴
 황윤주⁵⁷ 황인규⁸³ 황인정⁸⁴
 황일호⁸² 황창익⁶⁴

◇師範大學

강길선⁵⁷ 강수길⁶⁸ 강신포⁷⁵
 강종원⁵² 강철용⁷⁶ 강필중⁹⁰
 강하구⁶⁶ 고영신⁸⁰ 고종익⁷⁸
 광진영⁹⁹ 구준희⁶⁰ 국철호⁸¹
 국해웅⁶⁷ 권오승⁷⁶ 권정화⁸⁶
 권택홍⁷² 권혁봉⁶⁰ 금승호⁶⁴
 김용⁹³ 김경하⁴¹ 김계규⁶⁵
 김기민⁷⁹ 김남형⁸⁴ 김동일⁸⁷
 김동학⁵⁸ 김명순⁶⁵ 김명훈⁵⁸
 김무길⁷² 김무홍⁶⁴ 김방준⁹⁷
 김병연⁷⁶ 김상대⁶⁰ 김상윤⁸³
 김성열⁸² 김성진⁵⁷ 김소연⁸⁹
 김순덕⁷⁶ 김순혜⁷⁵ 김식중⁵¹
 김신근⁵⁹ 김신일⁶³ 김영숙⁵⁵
 김영환⁶⁰ 김영희⁷² 김완복⁷⁶
 김용욱⁵⁷ 김유선⁵⁵ 김유자⁷¹
 김은재⁴⁵ 김정식⁶⁵ 김종식⁷⁷
 김종화⁷² 김지현⁸⁶ 김진규⁷⁸
 김진실⁴³ 김진철⁷² 김창룡⁷⁰
 김창환⁸² 김철진⁷⁵ 김치경⁶⁴
 김태영⁶⁰ 김태홍⁷⁹ 김학수⁴⁰
 김학찬⁶⁹ 김혜원⁵⁹ 김후란⁵³
 김흥기⁶⁵ 김희천⁸¹ 나병삼⁶⁸
 남복희⁴³ 남정결⁵⁸ 노기홍⁸⁸
 노병룡⁶⁰ 류연나⁸⁸ 마종진⁵⁶
 문용호⁶⁹ 민병철⁶⁵ 민영문⁸¹
 민영업⁶⁰ 민청옥⁴¹ 박대식⁷⁵
 박동근⁶² 박병기⁸⁵ 박상래⁵⁶
 박석관⁷⁵ 박수환⁷⁰ 박승덕⁵⁸
 박승준⁶⁷ 박영배⁵⁷ 박용수⁸⁷
 박유성⁹⁵ 박은배⁶⁹ 박정윤⁶²
 박정일⁶⁴ 박제학⁵⁷ 박종수⁶⁶
 박종현⁷⁴ 박종호⁸⁷ 박철홍⁸³
 박태준⁸⁴ 박하성⁸⁷ 박화열⁷¹
 박환윤⁵⁹ 박희용⁶⁹ 박희택⁷³
 방영선⁷⁹ 방재욱⁷⁵ 배동선⁷⁶
 변범식⁹³ 서건룡⁶⁴ 서덕현⁷⁶
 서정기⁵⁷ 서정선⁶⁴ 서풍일⁷⁰
 서형래⁷⁶ 석미경⁸⁶ 성낙관⁶¹
 성봉주⁸⁹ 소인철⁹⁹ 손수일⁵⁵
 손혜진⁸² 송대량⁶⁴ 송두현⁶⁹
 송복주⁵⁷ 송정실⁷¹ 송하진⁶⁵
 신훈⁷¹ 신복환⁸¹ 신재철⁷³
 신준국⁷⁷ 신차균⁷² 신희균⁶⁴
 심광환⁶² 심재석⁶⁰ 안상기⁶⁶
 안성희⁸⁸ 안역수⁶⁵ 안종환⁵⁹
 안하운⁵² 안희익⁶⁸ 양국성⁹⁷
 양영렬⁷⁵ 양재만⁸⁰ 엄영주⁷¹
 오두범⁶⁸ 오성록⁸⁰ 오성환⁷⁷

오진순⁸⁷ 오창호⁸² 왕경수⁸¹
 왕세균⁷² 원대식⁶² 유광원⁷⁹
 유근찬⁷⁵ 유남두⁶¹ 유명로⁶⁰
 유명수⁶⁵ 유문상⁵⁶ 유병석⁸⁴
 유시락⁶¹ 유옥찬⁶⁶ 유윤식⁵⁹
 유의식⁷⁸ 유인애⁷² 유진영⁷⁴
 유홍렬⁶² 유희임⁶⁸ 윤근성⁷⁶
 윤미선⁸⁹ 윤석원⁷⁵ 윤재운⁷⁵
 윤종박⁹⁴ 윤현경⁸⁸ 이경우⁴⁹
 이계학⁶² 이근일⁷⁴ 이기준⁷¹
 이도선⁵⁵ 이만형⁶⁹ 이명수⁷²
 이복환⁷⁷ 이상규⁶⁰ 이상현⁵⁴
 이석주⁶⁰ 이수영⁷⁰ 이수자⁵⁶
 이순원⁵⁸ 이안기⁷⁵ 이영선⁷⁵
 이우진⁵⁷ 이인자⁷⁵ 이재성⁷⁶
 이재홍⁷⁸ 이정단⁷⁷ 이정석⁶⁵
 이종신⁶⁵ 이종오⁵⁵ 이종혁⁸⁰
 이준형⁷⁷ 이지홍⁵⁶ 이창득⁷⁵
 이태웅⁷⁵ 이한규⁷⁰ 이항규⁹⁰
 이현숙⁸² 이훈상⁶⁵ 이휘자⁶⁴
 이희철⁹⁰ 이희환⁶¹ 임규성⁶⁹
 임부철⁸⁶ 임재홍⁷¹ 임형진⁵⁵
 장근화⁵⁷ 장하용⁸⁵ 전규동⁷²
 전명수⁵¹ 전병일⁷³ 전병호⁵⁷
 전찬화⁵⁴ 정귀생⁶⁴ 정두현⁶⁴
 정병희⁹⁰ 정복임⁶⁴ 정은실⁷⁴
 정찬동⁷⁸ 조병완⁵⁷ 조선형⁶³
 조용선⁶⁴ 조정휘⁶⁵ 조효성³²
 주봉노⁵⁹ 채수명⁶⁶ 최강문⁵⁸
 최병환⁷⁴ 최익규⁵⁶ 최재덕⁷⁴
 최종우⁷⁶ 최종진⁶⁸ 최준호⁸⁵
 최진석⁶² 추진이⁶³ 추연화⁷⁰
 추진호⁷⁵ 하병권⁵⁷ 하현준⁸²
 한미섭⁸⁵ 한상주⁶⁰ 한성홍⁷⁷
 한수인⁵⁷ 한인희⁶⁴ 함종규⁵⁰
 허윤구⁴⁷ 현순영⁴⁹ 홍경식⁴⁶
 홍석필⁵⁸ 홍성화⁶³ 황기연⁶²
 황적륜⁵⁸ 황정례⁷⁶

◇商科大學

갈정웅⁷² 강남규⁵⁸ 강승구⁶⁵
 강용규⁶⁰ 강인식⁷⁰ 강태석⁵⁵
 고덕영⁶⁶ 고상목⁵⁷ 구명준⁶⁸
 권영달⁵⁵ 권오화⁶¹ 권현무⁶⁶
 김기덕⁶⁵ 김도연⁶⁸ 김동식⁶⁵
 김세우⁵⁹ 김수환⁷³ 김송자⁶³
 김승웅⁶⁸ 김승훈⁷² 김식현⁵⁸
 김영곤⁵⁵ 김영수⁵⁶ 김영신⁶¹
 김영휘⁵⁹ 김용표⁷² 김용렬⁵³
 김용재⁷⁰ 김이현⁶⁶ 김자환⁶⁵
 김재형⁶⁵ 김정삼⁶³ 김정환⁶⁵
 김종석⁶³ 김종호⁵⁸ 김진전⁷¹
 김창달⁵⁷ 김창부⁶⁵ 나중현⁵⁸
 남대우⁶⁴ 민병훈⁶⁰ 박경하⁶⁸
 박광철⁶² 박영철⁶³ 박용선⁵⁶
 박은진⁵⁸ 박인석⁵⁶ 박임웅⁴⁶
 박임원⁵⁴ 박종태⁶⁷ 배종섭⁶³
 배철환⁶² 백정환⁶⁵ 백치곤⁵⁶
 서규상⁵⁷ 서병한⁶¹ 서상달⁶⁶
 서성석⁷² 서영택⁶² 서정욱⁶⁵
 성덕경⁷² 성준경⁶³ 소만호⁷⁵
 손영환⁶¹ 손재환⁷³ 신휘창⁵⁸
 심재석⁶⁴ 양재욱⁵⁷ 옥평일⁶⁶
 윤호⁶⁸ 윤가현⁵⁶ 이강현⁶⁵
 이관재⁶⁸ 이국희⁶² 이근재⁴⁸
 이근경⁷⁵ 이두한⁵⁶ 이련기⁶⁵
 이문범⁶⁴ 이병섭⁶⁴ 이석주⁵⁴
 이영선⁷⁰ 이영준⁷⁵ 이영진⁶⁴
 이원규⁶¹ 이은학⁶³ 이인철⁷³
 이재홍⁶¹ 이종렬⁴⁹ 이종용⁵²
 이종태⁶⁶ 이철호⁶³ 이철희⁶¹
 이충희⁷⁵ 이태규⁷⁵ 이한렬⁵⁸
 이한선⁷⁴ 이홍준⁵² 이희성⁶⁹
 장기호⁷⁴ 장병완⁷⁵ 장시원⁷⁴

장영준⁵⁴ 장지상⁷⁸ 정광섭⁷⁴
 정성환⁷⁰ 정순구⁶⁸ 정순엽⁷³
 정용팔⁵² 정인목⁴⁸ 정찬우⁶⁴
 정현진⁷⁵ 정형진⁶³ 조길호⁶⁷
 조송경⁵⁸ 조학국⁷² 주경로⁶⁵
 채현석⁶⁴ 최부완⁶⁰ 최연중⁶²
 최종훈⁶⁵ 최처락⁵⁸ 최한기⁷⁵
 하기주⁶⁵ 한재석⁶⁶ 한창근⁷⁷
 허재원⁶⁰ 황정길⁶⁶

◇獸醫科大學

강종구⁸³ 고기창⁷³ 권혁룡⁶⁵
 권호윤⁶² 권희동⁷⁸ 김찬⁵⁵
 김동환⁶² 김석호⁶⁴ 김신인⁶³
 김영철⁹¹ 김재인⁸⁶ 김종태⁷²
 김주성⁵⁸ 김태원⁶⁴ 김홍중⁷⁷
 나종국⁵⁸ 명상돈⁷⁸ 민동수⁸⁵
 박병식⁶¹ 박성권⁷⁸ 박영수⁶⁵
 박용호⁷⁸ 박인선⁸¹ 박현기⁷¹
 백영환⁶⁰ 소진국⁶⁸ 송상범⁸⁶
 오해걸⁵⁷ 원세현⁸⁶ 유문상⁹²
 이각모⁶⁹ 이강훈⁶⁴ 이경선⁷⁷
 이양성⁶² 이영원⁹³ 이정학⁸⁷
 이종환⁵⁹ 이진수⁷⁵ 이창업⁶³
 임봉택⁵⁹ 전원표⁶³ 정특⁶⁶
 정승기⁵⁸ 정의배⁸⁴ 정대석⁶⁸
 조광영⁵⁸ 최홍렬⁷³ 하배현⁷⁵
 한상익⁶¹ 홍두표⁵⁹ 홍성민⁷⁰
 황병주⁵⁷

◇藥學大學

강대홍⁵⁵ 강탁립⁶⁸ 고정애⁹¹
 권영재⁸³ 권정식⁴⁹ 김기현⁵⁶
 김도균⁹⁸ 김병술⁵⁵ 김병식⁵⁶
 김병철⁷²

정애련73 정혜운96 정화자64
조 양73 조길자66 조상현51
조송희79 조영남64 조원경88
조창연71 조학현65 주 호80
지은혜91 최선용80 최소희60
최수연89 최수은88 최조웅63
최종원80 허성혜89 홍부미자64
홍순덕77 황병훈75 황철익57
황현정87 황희영76

◇醫科大學

강대희87 강문수49 강병수98
강숙경98 강승주84 강홍모76
고영박70 기만덕84 김 윤68
김경래80 김동욱84 김동현87
김명진78 김상준72 김성진47
김연수88 김용식71 김우섭62
김운식75 김용흡79 김윤권81
김일동83 김재승89 김정근54
김정재85 김진하47 김진호61
김찬옥54 김철규64 김한수88
김현규89 김호성81 노효근56
문영규83 문익주51 민원식82
박성규64 박소배78 박윤상79
박은경89 박주배74 박중신89
변선규46 서범석99 신상철63
신영태73 신준우84 심동원57
안영민79 양성범81 양영승88
오도웅72 오세오85 오욱근56
옥인돈80 위성호88 유영진60
유은실62 유정현96 유현원62
윤병철84 은세윤78 이 용81
이건용75 이건재80 이규주84
이근후83 이남수50 이돈영52
이동환73 이명철83 이문규81
이방제63 이왕준92 이원종61

이인수48 이재담79 이재순56
이재원82 이종복65 이종호81
이철호79 임승운60 임채만85
임현술78 임현준63 장순목53
장연복77 전경호59 전예근53
정광원63 정영미99 정용인74
정운혁49 정은미80 정제일59
조규상48 조대순79 조병제76
조영선48 조현섭78 최복식84
최완주80 최종성75 최종운83
탁용준81 하일수80 한갑수55
한경일88 한석상58 한종희75
한천석41 허 준89 허 현67
홍순관84 홍순원56

◇齒科大學

곽성순87 권기홍84 김기달82
김기홍81 김덕상66 김두현85
김명래73 김병석85 김봉환78
김성우75 김수남66 김승남96
김영태80 김영호62 김우성68
김우종71 김원우56 김원표74
김은희89 김정수89 김정욱89
김창희68 김재종74 김축준52
김충호81 김희철83 나병선76
노수영77 맹형열77 명노철69
문혁수77 민정미85 박동귀59
박동욱73 박동일83 방효숙61
백승동84 변광주42 부정선81
사명희89 석광덕75 성철제70
송학선78 심대섭59 안성훈81
오성근55 우광균56 원도종59
유기환70 은세원85 이강주77
이민영62 이범익67 이병훈79
이상봉85 이성종78 이완수57
이인경88 이재용80 이종문67

이종철82 이태영73 이해준83
이현석88 장항진77 정대식87
정윤석79 정인교75 정진구60
정평구62 조한준57 주영숙59
채윤필86 최기진47 최길수81
최양근88 최종호74 하용진85
한기완73 홍삼표78 홍현중88

◇大學院

강남준78 강보향86 강춘형81
권오남85 김경환92 김광성77
김대용96 김동한94 김재경87
김형국67 김홍소77 남세진60
남홍우61 문희수64 민경희88
박강문77 박종수69 박채용83
백상창74 손현준96 송나운89
신경환71 신희선82 심규석94
안수영86 양혜운88 윤경현64
이명희74 이범결62 이범구82
이상연85 이수형78 이시운81
이영재81 이용빈62 이용훈81
이재철78 임선하84 임장수82
장동주81 장영주83 전정순87
정병희52 조관형88 조태송87
조항범84 주형돈67 지충수77
최병래87 최인수85 최천석77
하종규77 허 웅68 허병기84
홍성혁86 홍정수95

◇經營大學院

김영상67 김찬홍94 박기범68
배동훈70 유태현75 이명재68
이종달75 이혁수96 전병문92
정홍길91 조형규68

◇保健大學院

강인구71 곽상빈71 기운호77
기호일82 김공현77 문상식95
문성환98 박당우64 박종안72
서광석81 서인선82 성익재85
손경희98 신언택61 윤철중90
이귀녕72 이순남92 이재호98
이태희90 임완호83 전태운77
조유정69 한서경67

◇司法大學院

가재환70
김두곤75 목철수75 박용수77
서기원70 유일연75 이요섭69
최영일75 한종범70

◇行政大學院

강신택61 강운원77 공전오69
김명국77 김번웅70 김원영70
박성환86 송병주80 신성섭89
윤미량91 이강래84 이동춘70
이용중93 임세환71 정수부77
최봉기77 최재범77

◇環境大學院

고성하77 권용수76 김성연88
김성현77 김수철78 김재완88
이장수74 조남건83 최재호81
홍선관91

◇최고경영자과정

강광식19 과 진49 구충모30
권용진36 권혁진47 김건치42
김관영45 김광석37 김기열30
김동수43 김봉규20 김영환34
김이환41 김일갑48 김정수13
김정운20 김종길29 김종찬5
김중본49 김진만46 김진홍19

김창희16 김치곤7 김항구40
김희언37 김희언38 문우행43
문정환47 박 석25 박 찬48
박건작47 박경명48 박성욱41
박영노48 박왕규42 박유재9
박인상28 박인준38 박종공47
박종구21 방상우31 배광우24
배석두36 배창환39 백복기29
백정기4 백준기40 변정수40
변정주41 서원식23 서철봉33
송형진48 신백용43 신일범29
신재덕49 신정택48 신현철47
심장섭40 안과순28 양영남46
염수한10 오병제21 왕기철42
원대연44 원명수48 유병봉8
유성규44 윤국현6 윤근혁47
윤기선33 윤덕영39 윤동균46
이강봉47 이건영18 이경수28
이대용42 이득춘35 이병정8
이봉우46 이봉훈40 이상수25
이상용49 이성호25 이세용48
이신웅20 이윤재48 이응상40
이일선9 이정훈38 이종철10
이중훈38 이중아37 이철우49
이행기48 이현종26 임동수42
임충현18 장남진48 장봉용25
장태완6 정보연43 정봉택13
정연동48 정영대48 정영수43
정의우43 정인균35 정일기35
정재성7 정호근33 조동현42
조방래40 조석래11 조성환48
조옥환46 차동천48 채의승38
최낙철3 최종근44 최종원16
최종일42 하정우15 한수도48
한재열22 홍영재48 홍종대4
황승민26

◇최고산업전략과정

강득수3 강석대15 고재하14
권오열22 김두경16 김서곤11
김석준11 김성철14 김수봉21
김장근15 김재연21 김종열19
김주곤3 김주현22 김춘식6
남형우4 문기수14 박건차16
박광전14 박대천15 박윤소2
박인호12 박형국12 백성근22
성기탁20 소병규19 송태진22
신동철17 신현교11 안병수9
오 현5 원석동19 이건창5
이규수19 이기종13 이복근12
이상범9 이왕열7 이용수22
이재욱14 이준상15 이중기5
이태화16 이해규12 임재호18
전종윤10 정병욱12 정병철10
정우영22 정운경6 정원용15
정태현21 조병오17 조석구4
조인형13 조흥구18 지상철15
차동성2 채규평3 채대석15
최길순21 최영우12 홍승철17
황선우7 황용환17

◇국가정책과정

강신출49 권도중49 권병태40
권상문45 김계휘42 김남경41
김병문23 김병철45 김부근31
김성만39 김성은30 김성현40
김용성41 김우연14 김운환28
김인영29 김재종48 김찬희1
김창환27 김행복27 김형희34
남상해37 노영철48 노재우16
노정기36 박관용18 박성득20
박신언16 박인호43 박희방33
방기현46 변웅전44 서광선31
서찬교40 송선근49 안광찬46
안효원45 양인석35 양재범25

오세득32 우 성21 유갑중24
유용근38 유재만19 윤영우19
윤영우19 이상재20 이정재46
임규홍34 전덕성21 전영배5
정진호46 정형근36 조강호37
조건창49 조영래34 조진형36
최갑진32 최상호41 최창현25
한행수44 황교선39

◇고급금융과정

강호식2 곽동준11 김영석15
김창경6 김철근1 남정복6
도승호6 박현철10 배관규7
신완섭12 윤수중10 이경열1
이대근12 이상필15 장병목14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강석훈1 곽이해4 김경섭2
김성대4 김철수6 박대순1
박문기6 박영준2 박창수5
배영석6 서정설6 신관순6
안병철5 안성한1 유제복5
이양섭4 이영배6 이재원4
이철주6 이한구5 장신현3
장정식6 정인택3 정지열3
조규식2 주재현4 최병하6
최재덕6 황상균5 황요성6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권철현3 김만수5 박영종5
박정호5 박준현5 서장열5
서정석5 손영채5 유금종3
이병렬5 이영복1 이종춘5
이희조5 장진숙5 정진근4
차원갑5 최규호5 허 준2
홍성신2

◇보건의료정책과정

권차남5 김 웅6 김동관6
김명중6 김운하5 김윤희1
김일용6 김종필5 박 윤4
박승언6 손재립6 송종근4
송행종1 안호원6 윤상록6
윤석모6 윤원진6 이건화4
이공순5 이공우5 이무남5
이장생6 이준석5 이태수6
장량구3 장성호6 정병욱2
정지행5 조영숙5 지영재6
진상해4 전병태2 하덕성5
홍광식3

◇가정간호수습과정

이계숙7 이재숙7 임승정5
정연자3

지부분담금

◇중외제약지부 : 59만원

▲구본암 ▲권희안 ▲김병영
▲김병진 ▲김선미 ▲김수영
▲김숙현 ▲김종민 ▲김지배
▲남웅현 ▲서동철 ▲서형식
▲양지영 ▲오세웅 ▲이기호
▲이윤임 ▲조남춘 ▲최상호
▲최영길 ▲최중부 ▲최학배
▲최현식 ▲함은경 ▲홍성선

◇아르헨티나지부 : 30만원

◇오사카지부 : 587,000원

합 계 : 100,897,000원
누 계 : 554,044,500원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 2000년 10월 1일 ~ 10월 31일)

개 인

◇人文大學

▲이기봉88

◇社會科學大學

▲황철순92

◇自然科學大學

▲조재현96

◇家政大學

▲권서현96

◇看護大學

▲김영순79

◇工科大學

▲김승철86 ▲문종윤95 ▲유승준67
▲정유석93 ▲주석중77 ▲최명진90
▲최병준99 ▲최택성79 ▲한대수80
▲한인철88

◇農科大學

▲김대우89

◇文理科大學

▲김영철68

◇美術大學

▲박제성95 ▲손해경88

◇法科大學

▲이성훈88

◇商科大學

▲신직성67

◇醫科大學

▲김승원55 ▲오준호51

◇齒科大學

▲오계석67

◇大學院

▲남홍우61 ▲유영백88

◇保健大學院

▲강신희70 ▲김윤주92 ▲손은희97

◇최고산업전략과정

▲김용정21

◇고급금융과정

▲김창경6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김종호4